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박완성 교수 지도
석사학위논문

웹툰 ‘여중생A’를 통해 본
청소년 자살과 비관여자에 관한
상담학적 연구

삼육대학교 대학원

상담심리학과

송 한 나

2022년 12월

박완성 교수 지도
석사학위논문

웹툰 ‘여중생A’를 통해 본
청소년 자살과 비관여자에 관한
상담학적 연구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12월

삼육대학교 대학원
상담심리학과 상담심리전공

송 한 나

송한나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주 심 : 박 종 환 (인)

부 심 : 정 성 진 (인)

부 심 : 박 완 성 (인)

삼육대학교 대학원

2022년 12월

목 차

목차	i
표 목차	iii
그림 목차	iv
국문초록	v
I. 서론	1
A. 연구의 필요성	1
B. 연구 문제	6
C. 용어의 정의	7
II. 이론적 배경	9
A. 청소년 자살	9
B. 자살의 상황적 요인	15
C. 비관여자	21
III. 연구 방법	25
A. 연구 대상	25
B. 문헌 분석 방법	29

C. 연구 절차	31
D. 연구의 엄격성 및 윤리적 고려	33
IV. 연구 결과	36
A. 폭력적 상황	37
B. 감정이입의 고조	47
C. 감정의 몰입	55
D. 고통	61
E. 회피	68
F. 자살에 대한 비관여적 태도의 상담학적 함의	76
V. 결론	82
A. 요약	82
B. 논의	86
C. 제언	91
참고문헌	94
ABSTRACT	107

표 목 차

표 1. 웹툰 ‘여중생A’ 속 인물들의 주요 특성	27
표 2. 웹툰 ‘여중생A’ 분석 결과	36

그림 목 차

그림 1. OECD 국가 연령표준화 자살률 비교	11
그림 2. 연령별 3대 사망원인에 따른 사망률 및 구성비	13
그림 3. 가정에서의 폭력적 상황(장미래)	37
그림 4. 가정에서의 폭력적 상황(현재회)	42
그림 5. 학교에서의 폭력적 상황(현재회)	43
그림 6. 학교에서의 폭력적 상황(장미래)	45
그림 7. 자살 생각 청소년의 감정이입의 고조(장미래)	49
그림 8. 자살 생각 청소년의 감정이입의 고조(현재회)	52
그림 9. 자살 생각 청소년의 감정의 몰입(장미래)	58
그림 10. 자살 생각 청소년의 감정의 몰입(현재회)	59
그림 11. 자살 생각 청소년의 고통(장미래)	61
그림 12. 자살 생각 청소년의 고통(현재회)	66
그림 13. 자살 생각 청소년의 회피(현재회)	69
그림 14. 자살 생각 청소년의 회피(장미래)	70

국문 초록

웹툰 ‘여중생A’를 통해 본 청소년 자살과 비관여자에 관한 상담학적 연구

송 한 나

삼육대학교 대학원

상담심리학과 상담심리전공

본 연구의 목적은 자살 생각 청소년 본인과 주변의 비관여자들이 보이는 자살에 대한 비관여적 태도를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청소년 자살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인 가정 및 학교에서의 폭력적 상황은 비관여자의 직접적 혹은 간접적 묵인 하에 강화된다. 심지어 자살을 결심한 청소년 본인조차도 어떤 의미에서는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의 목숨을 포기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비관여자’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비관여자의 현상은 대부분 고착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따라서 청소년 자살과 비관여자에 대한 특성을 분석하여 상담사의 외부적 개입의 근거를 마련하고 향후 자살 분야의 게이트키퍼(gatekeeper) 양성을 위한 기초 자료를 갖추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12년부터 2022년까지 10년 동안 연재 또는 출판된 웹툰 중 청소년 자살과 관련된 요인들이 보다 현실적으로 묘사된 웹툰 ‘여중생A’를 의도적 표집 방법으로 선정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방법으로는 문헌해석학적 연구의 해석학적 순환을 적용했다. 해석학적 순환은 어떤 것을 온전히 이해하고자 할 때, 전체적 맥락과 부분적 사건의 관계를 설명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연구의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연구 주제 및 목적과 관련된 각종 자료들을 본문에 함께 제시하였다. 그 결과, 자살 생각 청소년의 가정 및 학교에서 청소년 본인을 포함한 모든 비관여자는 ‘폭력적 상황’, ‘감정이입의 고조’, ‘감정의 몰입’, ‘고통’, ‘회피’의 과정을 밟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살에 대한 비관여적 태도는 관계적 고통이 반복되면서 그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인간의 본능적 욕구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자살 생각 청소년과 비관여자 모두에게 사회적 낙인을 찍는 것을 멈추게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대신 그들의 심리와 행동을 판단하고 진단하기에 앞서 먼저 전체적인 상황의 흐름과 특정 사건들의 관계를 통해 현상을 이해하는 데 기여한다.

이와 같은 자살 생각 청소년의 고통과 비관여적 태도의 악순환을 사전에 차단하고 주변의 비관여자를 행동하게 하여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고도로 훈련된 자살 분야 전문 상담사가 절실히 필요하다. 이때 상담사는 자살을 결심한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비관여자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줄 수 있어야 하며, 그들이 지닌 자살에 대한 올바른지 않은 인식을 개선하고 비관여자의 행동 실행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

주요어: 청소년 자살, 문헌해석학적 연구, 웹툰 ‘여중생A’, 자살예방, 비관여자

I. 서론

A. 연구의 필요성

보건복지부(2019)에서 실시한 자살실태조사에 따르면, 정신과 전문의 판단에 따른 자살기도 원인에 대해 정신과적 증상(42.8%) 다음으로 대인관계 문제(25.4%)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금전손실(6.1%)이나 신체적 질병(5.2%), 직장 관련 문제(1.9%), 학업 관련 문제(0.9%) 등과 같은 현실 생활 속의 문제보다 대인관계 문제가 자살의 원인으로 월등히 높게 나타난 것은 대인관계에서 발생하는 어려움과 고통이 결코 가볍게 볼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특히 대인관계 상의 심각한 어려움과 위기가 우울증처럼 정신증적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자살기도 원인의 상당수가 대인관계와 매우 밀접함을 알 수 있다(Joiner, 2012).

청소년기는 대인관계 기술 및 스트레스 대처 능력 등 많은 방면에서 아직 미성숙한 상태이다. 동시에 청소년기는 사춘기를 겪으면서 아동기의 비교적 단순한 관계 맺기에서 벗어나 복잡한 심리와 감정을 지닌 대인관계를 본격적으로 맞닥뜨리는 시기이기도 하다. 게다가 급격한 몸의 변화와 더불어 자아정체감이라는 중요한 과업을 수행하고 성인기의 진로를 준비하는 때이기에 청소년은 모두가 서투르고, 모두가 예민하다. 게다가 청소년이 지닌 생각의 관점은 자아중심적인 특성이 있어 극단적이고 비합리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기가 쉽다(정옥분, 2004).

더욱이 학교폭력 피해자의 복합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PTSS)을 분석한 정지선

(2008)의 연구에 따르면, 대인관계에서의 상처는 대개 반복적이고 만성적으로 이루어지기에 이로 인한 정신적 문제는 일회적인 외상에 의한 것과는 분명한 차이점을 보인다. 장기간·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대인관계 상처의 경우 성격과 정서조절기능의 광범위한 변화를 일으키는데, 자아정체감이 형성되는 청소년기에는 발달 단계와 맞물리면서 망가진 자아와 부정적인 세계관, 자신의 삶에 대한 무가치함 등 더욱 심각하게 흐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른 발달 단계보다 청소년기에 겪는 부정적인 상황은 자살과 같은 선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

청소년 자살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는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가정과 학교가 꼽히며, 이곳에서 일어나는 학대나 폭력은 청소년을 극단적인 선택과 상황으로 내몰고 모든 희망을 무너뜨린다(김운삼, 2018). 거기다가 성인과 달리 청소년 자살은 충동성과 대인관계에서 받은 상처에 대한 보복성, 동반 자살 및 모방 자살, 돌이키기 어려운 자살 방법의 선택 등이 작용하고 있어 순식간에 일어난다는 특징이 있다(이광자, 2012). 이 때문에 사전에 적절한 개입을 통해 원인을 개선하지 않으면 청소년 자살을 예방하는 일은 요원해진다. 다만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청소년의 자살에는 상처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폭력적 상황에서 침묵을 택한 주변의 비관계자들 또한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자살은 본질적으로 관계의 부재에서 발생하고, 진실한 애착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주변에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설령 자살을 시도하려다가도 미루기 때문이다(유규진, 2020).

이렇듯 자살의 근본적인 원인도 관계적 요인이지만, 동시에 자살의 본질적인 해법 또한 관계에서 찾을 수 있다. 자살 분야에서 게이트키퍼(gatekeeper)는 문지기를 뜻하는 단어로, 자살 징후와 위험 상황을 빠르게 인식하여 필요한 도움을 제공

함으로써 사전에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모든 위치의 사람들을 모두 가리킨다. 즉, 게이트키퍼는 가족, 친구, 교사, 이웃, 경찰, 의료 전문가 등 매우 폭넓은 범위의 ‘주변인들’이다(서종한, 2018). 이러한 게이트키퍼 프로그램은 1980년대 초반 캐나다에서 개발된 이후 전세계적으로 그 효과성이 입증되고 있지만(백종우 외, 2014), 국내에서는 자살 예방 프로그램이 고위험 집단에만 국한되어 있을 뿐 일반 청소년에게는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은 데다 학교에서 실시되는 소수의 프로그램조차도 생명존중에 대한 보편적인 내용만을 다루고 있어 피상적인 수준에 그치는 상황이다(박석원 외, 2020). 게다가 한국은 다른 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년 압도적인 자살률을 보이고 있는 만큼(통계청, 2021), 많은 사람들이 게이트키퍼보다는 비관여자로서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을 비난하거나 자살 분야의 게이트키퍼 양성을 무조건 강조하기 이전에 우선 비관여자들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비관여자의 존재는 자살뿐만 아니라 폭력적 상황에서도 해결의 열쇠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상황 속에서 침묵한다. 그렇다고 ‘비관여자’들이 전부 타인의 고통을 즐긴다거나 공감 능력이 부족해서 폭력을 묵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폭력적 상황 속 피해자에게 과도한 감정이입을 할수록 비관여자 자신의 고통 또한 비례하기 때문에 이를 견디지 못한 것이 폭력을 묵인하는 상황으로 이어진 것뿐이다(이보경, 2018). 여기서 비관여자의 개념은 반드시 타인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자살 생각을 하는 사람 본인 또한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스스로를 포기하는 비관여자이다. 이러한 점은 자살을 계획하고 실행할 때 도리어 감정이 무감해지고 차분한 태도를 보이게 되는 데서 가장 잘 나타난다(유규

진, 2021). 피할 수 없는 고통에서 자신을 외면하고 감정을 배제하는 태도가 다른 비관여자들과 비교했을 때 놀랍도록 유사하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 자살에 대한 영향 요인을 비관여자의 존재도 포함한 넓은 범위로 봐야 한다.

자살에 대한 이러한 특성을 살펴보고자 할 때, 문화 콘텐츠는 매우 효과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시각적 문화 콘텐츠는 제3자의 시점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기 때문에 보다 객관적인 시각으로 현상을 조망할 수 있다. 비록 가상의 이야기라 할 지라도 그것이 사회적 방식으로 생성되고 유통되는 만큼 ‘사회적 사실’로서 청소년 자살과 같이 특정 사회 현상을 연구하는 데 그 대상으로 손색이 없다(천정웅, 2019). 특히 대인관계에서의 상처는 매우 개인적인 경험이면서도 타인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모습으로도 존재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그 중에서도 웹툰은 드라마나 영화 등 다른 콘텐츠에 비해 제작의 용이성이 높고 이용자의 능동적인 참여, 연재 방식의 산업 구성, 자유로운 제약 환경 등으로 인해 일상적이면서도 사회적인 부분을 재현하며 작가의 지난 경험을 통한 현실적인 서사가 만들어진다고(박범기, 2016). 즉, 웹툰의 경우 기본적인 줄거리는 이미 정해져 있어도 웹툰 작업과 동시에 인터넷을 통해 연재되면서 이용자가 댓글을 통해 스토리에 개입할 수 있어 작가 혼자만의 상상이라기보다는 사회적인 목소리를 대변하는 창구라고도 할 수 있다. 특히 청소년 이용자의 비중이 높은 웹툰은 성인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청소년의 생각과 행동, 상황을 고스란히 담아낼 수 있게 되었다(위근우, 2015).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웹툰 ‘여중생A’의 경우, 네이버 웹툰 연재 때부터 청소년과 성인 모두를 아울러 폭넓은 공감대를 이끌어낸 작품이다. 그중에서도 청소년 이

용자로부터 큰 공감과 공분이 형성되었다는 점(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2017)에서 연구 대상으로서의 가치가 높다. 또한 웹툰 ‘여중생A’는 정형화된 청소년의 모습이 아니라 실제 그 또래 학생들이 겪을 수 있는 상황, 감정, 행동들을 담담하고 생생하게 표현해내고 있다(김경애, 2019). 비록 주인공은 ‘장미래’라는 캐릭터로 정해져 있지만 장미래를 필두로 그려지는 수많은 청소년들의 모습을 통해 각기 다르지만 공통적인 부분도 많은 그들의 사정과 심리를 엿볼 수 있는 것도 이 이야기의 장점이다. 특히 웹툰 ‘여중생A’는 단순한 그림체나 간결한 구성들로 심리 서사를 매우 섬세하고 치밀하게 묘사하고 있어 문헌해석학적 연구 자료로 더욱 적합하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문헌해석학적 연구 방법은 문자로 기록되어 고정된 텍스트를 해석하는 것으로, 다양한 형식의 기록을 설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안에 내포된 의미를 해석하여 진정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텍스트는 문자나 언어만을 의미하지 않고 그 배경에 있는 상황적 맥락까지 모두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즉, 상황적 맥락이 언어의 상징성에 녹아들어 문자로 나타난다고 본다(이상오, 2007). 이러한 해석학적 연구에서는 필연적으로 해석자의 관점이 배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기존의 상식이나 이해, 관점을 통틀어 ‘전이해’라고 부른다. 해석학적 연구에서 전이해는 장애물이 아니라 해석 및 이해 과정에서 결코 배제할 수 없는 중요한 요인이고(고진호, 1997), 방법론상의 결점이 아닌 장점이 된다(손영수, 1998). 이에 본 연구는 웹툰 ‘여중생A’를 문헌해석학적 방법으로 분석 및 해석하여 자살 생각을 하는 청소년과 주변에 존재하는 다양한 비관여자들에 대한 상황적 맥락을 본질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B. 연구 문제

본 연구는 웹툰 ‘여중생A’에 나타난 가정과 학교에서의 폭력적 상황이 청소년 자살 생각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특히 자살 생각 청소년과 비관여자가 보이는 자살에 대한 비관여적 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했다. 이때 비관여자는 폭력적 상황에 개입하기보다는 비관여적 태도에 고착되어 있어 이를 스스로 벗어나기는 어렵다. 이는 곧 상담사의 외부적 개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자살 분야의 게이트키퍼(gatekeeper) 양성을 위한 기초 자료를 갖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에 따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웹툰 ‘여중생A’에 나타난 가정에서의 폭력적 상황은 어떻게 전개되는가?
2. 웹툰 ‘여중생A’에 드러난 학교에서의 폭력적 상황은 어떻게 발전하는가?
3. 웹툰 ‘여중생A’에 보여지는 폭력의 비관여적 태도는 어떠한 심리 기제로 이루어지는가?
4. 웹툰 ‘여중생A’ 속 폭력적 상황과 그에 대한 비관여적 태도는 청소년 자살 생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5. 청소년 자살 생각으로 이어지는 상황적 맥락을 어떻게 차단하고 궁극적으로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가?

C. 용어의 정의

1. 자살

자살이란, 한자로는 自殺이라고 표기하며 영어로는 suicide라고 하는데, 이는 라틴어로 자기 자신(sui)과 죽인다(caedo)를 뜻하는 두 단어의 합성어이다. 자살은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스스로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외상 경험의 가장 슬픈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해치는 대상이 타인이 아닌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자기결정권의 일종으로 판단할 수 있어 범죄로 보기는 어렵다(비판사회학회, 2014). 하지만 베르테르 효과와 같이 자살은 전염성이 매우 높아 결코 개인적인 문제라고 단정할 수 없다(남순현, 2008).

2. 청소년 자살 생각

자살 생각은 죽음에 대한 일시적인 생각부터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까지 포함되는 개념이다. 자살 생각이 반드시 실제 자살로 이어진다고 볼 수는 없지만, 자살 시도의 중요한 예측 지표가 되는 것은 틀림없다(임영식, 2004). 특히 청소년 자살의 경우 심리적으로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정말 죽고자 하는 강한 의지보다는 충동성과 보복성 등 비합리적이고 극단적인 심리 기제로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특성을 지닌다. 따라서 자살 생각 경험이 있는 청소년에게 적절한 사전 개입이 제공된다면 충분히 자살을 막을 수 있다(이광자, 2012).

3. 비관여자

비관여자(非關與者, non-involver)는 관여자(involver)의 반의어로, 어떠한 일에 관련되어 참여하거나 행동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킨다. 이와 같은 명칭을 사용한 선행 연구로는 대표적으로 장혜정과 장은정(2008)의 교육공학 분야 연구가 있는데, 상호작용자 유형에 따라 구분하는 과정에서 상호작용에 참여하지 않는 학습자를 비관여자로 지칭하였다. 이처럼 비관여자는 대체로 일정한 상황에서 뒤로 물러나 있는 사람을 뜻하는 것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자살의 주요 요인인 가정과 학교에서의 폭력적 상황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행동을 취하지 않은 모든 이들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4. 문헌해석학적 연구

해석학(hermeneutics)은 언어 기록으로 고정된 텍스트를 해석하는 방법으로, 그 기록을 단순히 설명하는 것을 넘어 그 안에 내포된 의미를 해석하여 진정한 이해에 도달하고자 한다. 여기서 텍스트란, 문자로 작성된 언어만을 지칭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언어에 나타난 상황적 맥락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이상오, 2007). 이러한 해석학은 19세기 철학자 Dilthey가 자연과학의 규칙과는 분명한 차이를 보이는 인간만의 규칙을 이해하기 위해 정신과학의 연구 방법으로서 제시한 것으로(박종엽, 2019), 이후 지속적으로 발전해 고전 자료, 종교 문헌(성경), 법률 관련 텍스트 등 다양한 형식의 문헌들을 해석하는 데 중요한 패러다임을 제공하고 있다(유강민, 손영수, 2009).

II. 이론적 배경

A. 청소년 자살

1. 청소년기의 특성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신장과 체중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2차 성장이 시작된다. 타고난 성별에 걸맞은 호르몬이 발달하면서 점차 체형이 변화하고 거의 성인에 가까운 모습을 하게 되는 것이다. Piaget가 제시한 인지 발달의 마지막 단계인 형식적 조작기에 도달한 청소년은 추상적 사고, 가설, 체계적 사고 등이 가능해지기도 한다. 그러나 아직 스스로와 세상에 대한 이해 및 경험이 성인에 비해 아직 부족한 만큼 그들의 사고에는 이상주의적 측면이 있다. 게다가 상상적 관중이나 개인적 우화와 같은 자기중심적 사고는 청소년을 비합리적이거나 때로는 위험하고 극단적인 행동으로 몰고 갈 수 있다(정옥분, 2004).

이렇듯 신체적·인지적·정서적 변화를 많이 겪는 청소년기에는 우울증이나 자살 생각을 하더라도 사춘기와 혼동하여 주변에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강하다. 그 때문에 청소년에 대한 개입이나 치료가 늦어져 정말 심각한 단계에 이르기 전까지 청소년이 그대로 방임되기도 하고, 그 기간 동안 청소년은 아무도 자신의 마음을 몰라준다는 생각에 더욱 절망에 사로잡히기도 한다(유규진, 2021).

또한 청소년기는 자아정체감을 발달시켜 확립하고자 하는 시기로, 이때 겪은 심각한 상처는 자아를 망가뜨리고 이후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다. 여기서 말하

는 상처는 직접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외부의 무관심이나 방임, 부모의 비도덕성에 대한 회의감 등 매우 광범위한 것으로 모두 자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유규진, 2020). 특히 상처가 한 순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인관계 내에서 오랜 기간 동안 일어나는 경우, 그 경험은 성격과 자아정체감, 자기조절기능을 심각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 집중해야 한다(정지선, 2008). 이렇듯 아직은 상대적으로 미숙한 청소년이 오랜 시간에 걸쳐 받은 무수한 상처는 내면에 차곡차곡 쌓이면서 어느 순간 자살이라는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어 더욱 위험하다(김태형, 2017).

2. 청소년 자살 생각

자살의 특징 중 하나는 전염성이 매우 뛰어나 한 사람의 죽음이 순식간에 여러 사람에게 옮겨질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청소년은 사춘기와 2차 성장을 겪으며 신체적·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 있어 더욱 위험하다. 이를 베르테르 효과 혹은 모방 자살이라고 부르는데, 누군가의 자살 소식이 알려졌을 때 그에 대한 감정적 동일시로 인해 다른 사람들 또한 자살을 결행하는 현상이다(남순현, 2008). 모방 자살은 반드시 얼굴이 널리 알려진 유명인으로 국한되지 않고 자신과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의 자살 또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오마이뉴스, 2009; 오마이뉴스, 2010; 연합뉴스, 2013). 특히 주변 환경, 그 중에서도 또래 관계에 많은 영향을 받는 청소년기에는 친구의 자살시도 경험 또한 자살을 고통에서 탈출할 수 있는 출구처럼 인식하게 하여 자살 생각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여기서 친구의 자살시도 경험은 자살로 인해 사망했거나 살아남은 경우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 시도 자체만으로 큰 충격을 안길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송인한, 2012).

게다가 청소년의 자살은 누군가에 대한 보복으로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고 충동적인 경향이 강해 순간적으로 발생한다는 특징이 있어 적절한 개입만 주어진다 면 청소년의 자살을 충분히 막을 수 있다(이광자, 2012). 특히 한국에서 자살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그림 1에서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한국의 자살률은 2020년 기준 10만 명 당 23.5명으로 OECD 국가들 중 1위이며 평균인 10.9명보다 두 배를 훨씬 웃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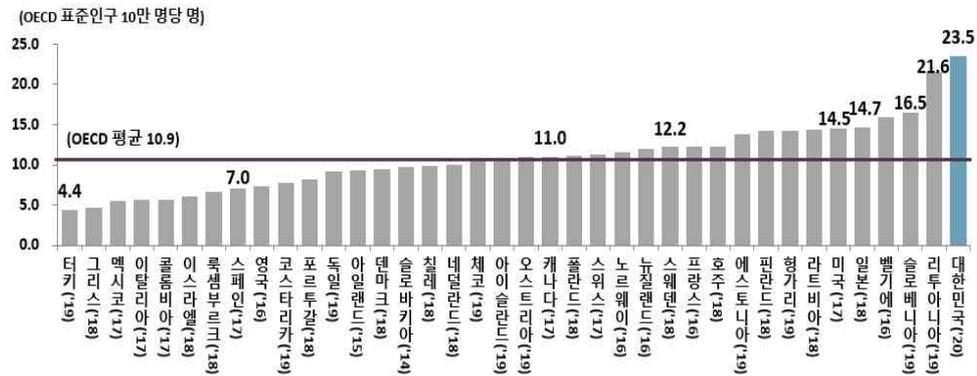


그림 1. OECD 국가 연령표준화 자살률 비교¹⁾(통계청, 2021).

이처럼 OECD에서 발표한 한국의 자살률이 2017년 한 해(라투아니아 1위 24.4명, 한국 2위 23.0명)를 제외하고는 거의 10년 내내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통계청, 2019)은 한국 사회의 병폐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심지어 한국의 자살자 수는 다른 나라에서 전쟁 중 사망한 군인과 민간인을 합친 수보다 월등히 많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이라는 기간 동안 한국의 자살자 수

1) OECD에는 자료 이용이 가능한 38개 국의 최신 자살률 자료를 2019년까지 공표하고 있다. 여기서 나타난 한국에 대한 최근 자료는 통계청에서 OECD 표준인구로 계산하여 적용한 수치이다.

와 아프가니스탄의 전사 사망자 수를 비교했을 때, 한국이 약 5배로 더 많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자살은 경제적 문제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기아로 고생하는 아프리카나 전쟁으로 목숨을 잃는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에서는 오히려 자살률이 현저히 감소한다는 점에서 자살의 원인을 경제적인 것으로 결코 볼 수 없다. 게다가 소득을 기준으로 자살률을 살펴보았을 때, 한국이나 미국 모두 오히려 부유층의 자살률이 가장 높다는 점 또한 이러한 점을 뒷받침해준다. 따라서 GDP가 세계적으로 높은 국가 중 하나인 한국에서 진짜 자살의 원인은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관계적 문제이다(김태형, 2017).

청소년 자살에서도 성적 비관이나 압박감, 경제적 문제 등이 자살의 이유로 언급되는 경우가 많은데, 설령 유서에 적혀 있는 내용이 그렇게 보이더라도 그 상황이 곧 자살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청소년을 실제 자살로 이끈 것은 상황 자체가 아니라 그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은 마음, 자신이 누군가에게 짐이 될까 두려운 마음, 비교 당하지 않고 인정 받고 싶은 마음 등 모두 관계적 문제에서 발생한다(유규진, 2020). 세계적인 자살학자이자 임상심리학자인 Joiner(2012)가 제안한 자살 모형 또한 좌절된 소속감과 인식된 부담감 등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이론적 모형을 적용하여 한국에서 시행된 연구에서도 두 변수가 청소년의 자살 생각에 주효과 및 상호작용 효과를 모두 보이고 있어 자살에 대한 원인이 대인 관계에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하정미 외, 2010).

더욱이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한국의 높은 자살률이 특정 연령대에 집중되어 있는 현상이다. 통계청(2021)에서 조사한 결과, 2020년 한국의 1일 평균 자살 사망자는 36.1명으로 매우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10대, 20대, 30대라는 청소년기부터 청년기까지의 사람들에게서 자살이 사망원인 1위인 것으로 나타

났다. 다른 연령대나 타 사망원인들과 비교하여 10대, 20대, 30대의 구체적인 사망률 및 구성비를 살펴보면, 그림 2와 같다.

(단위 : 인구 10만 명당 명, %)

	0세	1-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세 이상
1위	출생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	악성신생 물	고의적 자해(자 살)	고의적 자해(자 살)	고의적 자해(자 살)	악성신생 물	악성신생 물	악성신생 물	악성신생 물	악성신생 물
	116.7 (48.5%)	1.6 (18.0%)	6.5 (41.1%)	21.7 (54.4%)	27.1 (39.4%)	39.8 (28.3%)	113.0 (36.6%)	270.6 (42.4%)	677.5 (35.7%)	1375.6 (17.6%)
2위	선천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	운수사고	악성신생 물	악성신생 물	악성신생 물	고의적 자해(자 살)	고의적 자해(자 살)	심장 질환	심장 질환	심장 질환
	41.1 (17.1%)	0.7 (8.0%)	2.2 (14.0%)	4.1 (10.2%)	13.2 (19.1%)	29.2 (20.8%)	30.5 (9.9%)	55.9 (8.8%)	186.8 (9.9%)	971.5 (12.4%)
3위	영아 돌연사 증후군	가해(타 살)	운수사고	운수사고	심장 질환	간 질환	심장 질환	뇌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폐렴
	21.4 (8.9%)	0.6 (7.3%)	2.0 (12.9%)	3.8 (9.4%)	4.1 (6.0%)	11.5 (8.2%)	26.2 (8.5%)	38.9 (6.1%)	142.9 (7.5%)	819.2 (10.5%)

그림 2. 연령별 3대 사망원인에 따른 사망률 및 구성비(통계청, 2021).

0세를 제외하고 나머지 연령대 대부분에서 사망원인 1위로 나타난 악성신생물, 즉 암보다도 자살이 10대, 20대, 30대에게는 월등히 높은 사망률과 순위를 차지한다. 이는 젊은 세대에게 그만큼 한국 사회가 안전한 보호막이 되어주지는커녕 자살로 내모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다. ‘자살론’을 저술한 프랑스의 사회학자 E. Durkheim에 따르면, 자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관계성 속에서 해석되어 사회병리적인 현상으로 규정된다. 즉, 자살의 증가는 그 유형과는 상관없이 해당 사회의 위기를 대변하는 신호인 셈이다(성두현, 2015). 특히 성인으로서의 사회

적 활동을 준비하는 시기인 10대 청소년에게서 이러한 높은 자살률이 나타난 것은 한국 사회가 어딘가 심각하게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청소년 자살은 우울이나 자존감 등 개인적인 요인보다는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특히 가정과 학교는 청소년이 대부분의 시간을 소비하는 곳이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발생하는 폭력과 소외는 더욱 심도 있게 다룰 필요가 있다(김운삼, 2018). 게다가 청소년이 가정과 학교에서 받는 상처는 모두 반복적인 대인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러한 경험은 인지, 정서, 행동 모든 면에서의 병리적 증상과 함께 자아의 심각한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정지선, 2008). 특히 이러한 상처는 직접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누구와도 제대로 된 애착 관계를 갖지 못하고 무관심 속에 방치되는 것도 포함된다. 자살은 관계의 부재에서 발생하며, 이는 곧 단 한 명이라도 진심으로 관계를 맺는 사람이 있다면 설령 지금 당장 생을 마감하려던 사람조차도 자살을 미루게 되기 때문이다(이광자, 2012). 실제로 자살로 사망한 67명의 청소년이 목숨을 끊기 전 1년 동안 있었던 스트레스 상황을 조사했을 때, 모두 대인관계에서의 상실을 공통적으로 경험했다는 연구 결과는 자살과 관계적 문제의 인과관계를 더욱 잘 보여준다(Brent et al., 1993).

청소년기는 2차 성장과 자아정체감 확립 등 급격한 신체적·인지적·정서적 변화를 겪으며 사춘기를 경험하는데, 주변에서는 이러한 청소년기의 특성과 자살의 징조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자살의 징조가 나타났더라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방치하여 심각한 결과를 갖고 오게 된다(유규진, 2021). 하지만 청소년 자살은 개인의 내적 요인보다 외부적 요인으로부터 우선 촉발되기 때문에 사전에 빠르게 개입해 자살로 이르는 경로를 차단하면 상당수의 자살을 막을 수 있다(송인한 외, 2012). 즉, 주변의 무관

심과 방임이야말로 자살이라는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인 셈이다.

이때 자살은 자살 생각과 자살 시도, 자살 행동 등 여러 차원으로 나누어지는데, 그 중에서도 자살 생각은 일시적인 생각부터 실제 자살에 대해 구체적으로 계획하는 것까지 포괄한다. 이미 자살을 시도했거나 실행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지만, 자살 생각이 자살 시도에 대한 중요한 예측 지표인 것은 부정할 수 없다(임영식, 200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웹툰 ‘여중생A’을 통해 청소년이 가정과 학교에서 마주할 수 있는 폭력적 상황과 더불어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을 보호해 주지 못하는 수많은 비관여자들에 대한 상처가 어떻게 자살 생각으로 이어지는지 그 상황적 맥락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는 청소년 자살의 고유한 특성들을 반영하여 개인 내적인 요인이나 환경적 요인보다는 관계적 요인에 초점을 맞춰 분석 및 해석을 진행한 것이다.

B. 자살의 상황적 요인

1. 가정 요인

가정과 학교에서의 학대나 폭력, 부적응, 소외 등 관계적 상처는 청소년 자살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보인다(이경진, 2003; 이지연, 2004; 성두현, 2015; 김운삼, 2018).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 자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청소년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가정과 학교에서의 생활을 선행적으로 연구되어야 한다.

먼저 가정 요인 중에서도 가정폭력은 직접적인 폭력이 행해지는 것으로서 청소년

년의 자아에 손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후 학교생활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적 요인이다. 가정폭력은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폭력을 총칭하는 개념으로써 부부폭력, 자녀폭력, 부모폭력, 형제폭력 등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때 자녀의 입장에서 직접적인 폭력을 당하는 ‘자녀폭력’ 혹은 ‘아동폭력’ 외에도 부모가 싸우는 것을 목격하는 ‘부부폭력 목격’ 또한 가정폭력 및 자녀폭력의 범주에 속하게 된다(최정미, 이영호, 2017). 다시 말해 가정폭력은 가족구성원 간 일어나는 모든 폭력으로서 직접적인 피해자뿐 아니라 그 모든 상황을 옆에서 고스란히 겪은 목격자에게도 극심한 트라우마를 안겨 주는 외상 경험인 것이다.

게다가 가정폭력 중 부부폭력은 자녀폭력보다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성을 보인다.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등록된 학대발생가정 정보를 토대로 하여 아동보호서비스의 관점으로 가정 내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중 부부폭력의 중복발생을 연구한 김기현 외(2018)의 연구에 따르면, 가정 내에서 일어난 아동폭력, 즉 자녀폭력은 부부폭력과 21.4%의 중복발생률을 보였으며 표집 방법에 따라 40%에서 거의 100%의 중복발생률이 보고되기도 한다. 자녀폭력 중에서도 특히 신체적·정서적 학대와 높은 정적 상관을 나타내고 있어 부부폭력에 대한 해결책이 시급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더해 자녀폭력과 부부폭력이 동시에 발생한 가정의 학대행위자는 어린 시절 학대경험이나 성격적인 문제, 알코올 남용, 도박 및 게임 중독 등 폭력행동과 연관된 다양한 위험요인들을 함께 안고 있어 외부의 도움 없이 가족 내에서 해결하기가 매우 어렵다.

특히 알코올 남용과 관련된 가정폭력은 우발적 자녀폭력이나 의견충돌로 인한 폭력과는 다른 몇 가지 차이점이 나타난다. 부모의 알코올 남용으로 인한 가정폭력

은 폭력을 휘두르는 가해자가 잠들거나 자리를 벗어나기 전에는 학대가 멈추지 않으며, 폭력 이전에 뚜렷한 이유나 갈등 상황이 없이 갑자기 일방적으로 일어나고 그에 대한 설명 또한 부재한다. 이 때문에 폭력 피해자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고 이것이 반복되면 자포자기하게 되며 분노나 저항욕구마저 없이 무기력한 상태가 된다. 그에 더해 조용히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고 일시적으로 감정을 상실하며 사회적 관계에서 스스로를 철수시키기도 한다(이정숙, 2019).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가정 요인은 폭력 외에도 부적응이나 소외도 포함된다. 이광자(2012)에 따르면 청소년 자살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관계의 부재로부터 발생하는데, 이는 곧 직접적인 폭력보다도 진실한 유대 관계가 없는 부적응이나 소외가 오히려 자살과 더 깊은 관련을 가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가정 내 방임이나 소외는 부모의 이혼이나 맞벌이, 부모-자녀 간의 관계 등 다양한 가족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자살 생각을 지닌 청소년의 상당수가 가정 내에서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가족 간 충돌이 많은 상황에 놓여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청소년 자살에는 직접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소외감이 매우 크게 작용한다(Henry et al., 1994). 게다가 가족 문제와 절망감, 가족 문제와 통제 소재 간 나타나는 강한 부적 상관관계는 환경에 대한 통제감이 약한 청소년이 가족과 제대로 상호작용하지 못하고 방임 등의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 가정에서의 소외나 방임이 가정 밖에서도 지대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Topol & Reznikoff, 1982).

이렇듯 분명하게 드러나는 폭력 외에도 잘 드러나지 않는 진실한 관계의 부재 또한 청소년에게는 일종의 관계적 폭력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가

정과 학교 내 폭력과 소외 모두 동일하게 폭력적 상황으로 지칭하였다. 이와 같은 복잡미묘한 상황적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상황과 분위기에 깊게 몰입되지 않은 제3자의 시각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웹툰 ‘여중생A’의 관찰적 시각을 통해 가정 내 폭력적 상황과 그 속에서 도움을 제대로 주지 못하는 비관여자들이 청소년의 자살 생각에 있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2. 학교 요인

학교가 고통스러운 곳이 되는 대표적인 원인이 바로 학교폭력이다. 학교폭력은 학생 간 발생한 폭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폭력이 일어난 장소가 반드시 학교 안에 국한될 필요는 없다. 학교 밖에서라도 학생 간에 일어난 폭력이라면 곧 학교폭력이 되는 것이다(김건찬, 2012). 교육부(2021)가 실시한 2021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폭력의 유형은 언어폭력, 집단따돌림, 스토킹, 신체폭력, 사이버폭력, 금품갈취, 성폭력, 강요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언어폭력 유형의 비중이 41.7%로 다른 학교폭력 피해유형들보다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난 피해유형은 집단따돌림(14.5%) 유형과 신체폭력(12.4%) 유형, 사이버폭력(9.8%) 유형의 순이다. 이러한 통계는 실제 일어나는 학교폭력이 영화나 언론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잔혹하고 양상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신체적 위해보다는 보다 은밀하고 은유적으로 일어나는 경향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외부에서는 심각한 신체적·성적 피해가 아니고서야 언어폭력이나 집단따돌림의 경우 상대적으로 위중하게 보지 않는 경향이 있다. 심지어 심리치료 전문가조차 신체적 피해나 자살과 달리 쉽게 눈에 띄지 않고 증명하기가 어렵다는 이

유로 심리적 후유증을 지닌 학교폭력 피해자에게 관심을 제대로 기울이지 않는 경향이 많았고, 심각한 심리적 후유증을 가진 피해자들은 학교에 다니지 않거나 대안 학교로 전학하여 대부분 외부에 드러나지조차 못했다(정지선, 2008). 특히 학교폭력은 인생의 가장 예민한 시기, 자아정체성이 확립되는 중요한 시기에 일어난다는 특징이 있어 더욱 유의해 살펴봐야 한다.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이와 비슷한 개념으로 혼용되어 연구되는 것이 바로 학교 부적응이다. 학교생활 적응에 있어 청소년의 정서적 외상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본 김혜경(2020)의 연구에 따르면, 적응은 개인이 환경과 자신의 욕구를 상호 조절하여 그 사이에서 균형과 안정을 찾아가는 과정인 동시에 개인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로 환경을 이용하고 참여하는 상호작용이다. 따라서 부적응이란 적응과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학교 부적응을 학교와 청소년의 욕구가 서로 상충하거나 원만하게 조절되지 않아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혹은 청소년의 능동적인 참여가 부재하여 학교와의 상호작용이 되지 않는 상황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 외에도 학교 적응에 대해 친구관계 적응, 교사관계 적응, 학교수업 적응, 학교환경 적응, 학교생활 적응 등이 포함된 복합적인 개념으로 이해하여(박지만, 2016), 그와 반대로 학교 현장에서 폭력을 포함해 청소년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어려움이 학교 부적응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이러한 학교 요인은 청소년 자살에 있어 가정만큼, 혹은 그 이상의 강력한 영향을 발휘할 수 있다. 청소년의 자살 생각에 대한 영향 요인을 조사한 정지선(2021)은 자살 생각 무경험 집단에 비해 자살 생각 저빈도 집단과 고빈도 집단에서 학교폭력 유형 중 오프라인 관계폭력과 온라인 언어폭력을 더 많이 경험했으며, 자

살 생각 고빈도 집단에서 이러한 두 변인이 저빈도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음을 보고하였다. 특히 자살 생각에 있어서 신체적 폭력보다는 관계에서 경험하는 폭력이 더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 점은 청소년 자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학교 요인이 직접적인 신체적 위협보다는 대인관계에서의 미묘한 폭력임을 보여준다. 더욱이 관계 단절과 고립으로 인한 외로움이 청소년의 자살 생각에 대한 중요한 예측요인으로 나타나 비록 직접 폭력을 휘두르지 않았더라도 폭력적 상황에서 침묵한 비관여자가 자살에 있어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자살은 본질적으로 관계의 부재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비관여자의 묵인과 외면으로 인한 소외가 폭력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친다(이광자, 2012). 또래 괴롭힘의 직접효과가 자살 비수도 청소년에게는 유의하게 나타난 반면, 자살 시도 경험이 있는 청소년에게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점 또한 자살에서 폭력보다 비관여자의 존재가 더욱 중요함을 보여준다(홍나미, 정영순, 2012). 게다가 비관여자는 상황을 묵인함으로써 본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폭력을 강화시킨다. 하지만 동시에 폭력을 해결할 열쇠로도 여겨지기 때문에 비관여자들이 폭력에 침묵하지 않고 상황에 개입하여 행동하도록 이끌 필요가 있다(이보경, 201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웹툰 '여중생A'의 관찰적 시각을 통해 학교에서의 폭력적 상황이 어떻게 비관여자의 존재를 형성하고 청소년의 자살 생각으로 연결되는지 그 상황적 맥락을 면밀히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때 웹툰 '여중생A'는 청소년에게 가해진 신체적·언어적·정서적 폭력과 따돌림을 자극적인 소비재로 다루기보다는 현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어 이와 같은 연구 목적에 부합한다.

C. 비관여자

1. 비관여자의 개념

비관여자(非關與者, non-involver)는 어떠한 상황에 대해 참여하거나 특정 행동을 취하지 않음으로써 관련되지 않는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이다. 선행 연구에서 이러한 용례를 살펴보면, 먼저 학습자 성격 특성과 상호작용자 유형에 따라 웹 기반의 소집단 협력학습의 결과가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지 조사한 장혜정, 장은정(2008)의 연구에서 상호작용에 참여하지 않는 학습자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비관여자가 사용되었다.

반면 비관여자의 반의어라고 할 수 있는 관여자가 사용된 경우도 있는데, 기업범죄에서 일종의 공범이라고 할 수 있는 거래 상대의 형사책임을 연구한 홍태석(2016)의 경우에는 기업경영자와 거래한 상대방을 가리키는 용어로 대향적 관여자라는 명칭을 적용함으로써 범죄 행위의 기여도를 나타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스포츠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과 광고이미지, 광고 집중 효과를 비교분석한 김종환 외(2020)의 연구에서는 스포츠 소비자와 스포츠 관여자를 동일한 것으로 정의하였는데 이는 체험을 소비하는 주체이자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는 참여자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용어의 사용 선례를 모두 종합하면, 관여자는 어떠한 상황에 참여한 관련자를 뜻하는 것으로 해당 사항에 대해 일정 부분 책임이나 권리가 있음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관여자와 상반되는 개념으로서, 폭력적 상황을 분

명히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기 위해 비관여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2. 비관여자 관련 이론들

누군가 눈앞에서 위협에 처했거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여겨짐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많은 사람들은 행동하기보다 침묵하거나 상황을 회피한다. 이들이 바로 '비관여자'다. 비관여자는 특정 상황에 참여하거나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을 통칭하는 용어로, 이에 대한 직접적인 이론이나 모델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비관여자와 유사한 개념을 설명한 이론으로서 방관자 효과, 감정이입의 패러독스, 권위에 대한 복종 등을 들 수 있다.

먼저 방관자 효과에 따르면, 위협에 빠진 사람 근처에 자신 외에도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을수록 사람들은 더욱 도움의 손길을 내밀기보다 방관한다.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 군중 속에서 발생하는 익명성이 돕고자 하는 행동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Solomon et al., 1982). 하지만 그들의 본성이 특별히 악하다거나 타인의 고통을 즐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들은 지극히 평범하고 때로는 사회적으로 똑똑하다는 평까지 받는 사람들이다. 즉, 방관자는 그 개인의 악한 본성이라기보다는 군중 속에 있을 때, 혹은 끼어들었다가 괜히 자신도 피해볼까 두려운 마음, 문제가 발생한 그룹과의 동질성, 소속 욕구, 자신과 타인의 기준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다원적 무지, 사회적 영향력에 취약한 청소년기 등 인간이라면 누구나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타고난 본성과 특정한 환경적 요소가 결합되어 만들어지는 현상이다(Sanderson, 2020). 특히 애매모호성과 도움이 필요한 위

급 상황의 특성이라는 두 요인이 방관자 효과를 결정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느냐에 따라, 얼마나 ‘위급해 보이는’지에 따라 도움을 제공하고자 하는 행동을 억제하게 되는 것이다(Mason & Allen, 1976).

감정이입의 패러독스는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에 대한 과도한 감정이입이 오히려 그들을 외면하게 만들 수 있다는 개념이다. 여기서 감정이입 혹은 공감(empathy)이란 다른 사람이 느끼고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것을 느끼고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감 능력으로 인해 타인을 이해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경우도 분명 존재하지만, 공감이 언제나 좋은 방향으로만 쓰인다고 확인할 수는 없다. 공감 능력은 때때로 자신이 공감하는 이와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을 적으로 인식해 배척하게 만들기도 하고(Begue, 2013), 특히 과도한 감정이입은 자신이 느끼는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정작 도움이 필요한 이를 외면하거나 냉혹한 태도를 보이게 하기도 한다(이보경, 2018).

마지막으로 권위에 대한 복종은 사회심리학자 Milgram의 고전적인 연구인 복종 실험(1961년)을 의미한다. 이전에 만난 적은 없지만 권위자인 연구 책임자가 무고한 이에게 대답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고통스럽고 위험할 수도 있는 전기 충격을 가하라고 했을 때 얼마나 따를 것인지 실험한 것이다. 타인을 고통스럽게 하는 실험을 끝까지 진행하는 경우는 극소수일 거라 기대했던 연구 전의 예상과는 달리 아무런 잘못도 없는 이의 비명을 외면하고 최종 단계인 450볼트까지 전기 충격 강도를 높여가며 진행한 참가자의 비율은 65%였다(Benjamin & Simpson, 2009). 물론 그들은 전기 충격을 타인에게 가하는 동안 매우 고통스러운 표정과 몸짓을 보이며

그만하고 싶어 했으나 권위자가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을 결국 따랐다. 복종뿐만 아니라 동조나 순종과 같은 특성 모두 영향력을 따르고자 하는 인간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Cialdini, 2020). 이와 같은 이론은 청소년 자살의 중요한 요인인 가정과 학교에서의 폭력적 상황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권력 구도와 강압적인 분위기가 어떻게 비관여자의 행동에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설명해 준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에도 불구하고 비관여자가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행동할 때, 비로소 폭력을 막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자살 생각 청소년과 주변의 비관여자들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탈피하고 웹툰 '여중생A'의 관찰적 시각을 통해 먼저 그들의 생각과 심리, 행동을 온전히 이해하고자 하였다.

Ⅲ. 연구 방법

A.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웹툰 ‘여중생A’ 속 자살 생각을 지닌 청소년과 가정 및 학교에서 보여지는 비관여자의 존재를 문헌해석학적으로 분석하여 그 상황적 맥락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때, 웹툰은 연구 대상으로서 상당히 높은 가치를 지닌다. 높은 독자층을 차지하는 청소년 집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 아니라 관찰적 시각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기 때문에 비관여자와 같은 상황적 요소를 분석하는 데 매우 적합한 자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또한 웹툰은 감정이나 상황을 문장으로 길게 나열하여 설명하는 대신, 인간의 행동과 상황 자체를 색감과 표정, 터치, 배경 등으로 묘사함으로써 보다 생동감 있게 표현해낼 수 있다(서울신문, 2015. 11. 20). 주로 모바일 기기를 통해 소비되기 때문에 비교적 부담감 없이 접근할 수 있고, 일상적인 소재를 다루거나 개인이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는 공간이 되어 대중의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쉽다(김영숙, 2017). 이러한 특성들로 인해 웹툰은 다른 대중매체들과는 차별적으로 사회상을 재현하여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를 직접 직면하도록 한다(박범기, 2016). 더욱이 웹툰은 1318 세대라고 불리는 청소년기의 독자층이 높을 뿐만 아니라 작가 또한 젊은 세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많은 웹툰 속 등장인물과 내용까지 청소년에 맞춰져 있어 실제 청소년의 세계와 욕구를 살펴보는데 용이하다(위근우, 2015).

이뿐만 아니라 웹툰의 교육적 활용가능성을 탐색한 설연경(2020)의 연구에 따르면, 실제 교육현장에서는 텍스트로 이루어진 사실적 기술에 의한 것보다는 웹툰과 같은 일상의 내용을 다룬 예술적 콘텐츠가 학습자의 흥미와 관심을 더 이끌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감과 깊이 있는 이해에 더욱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이미 입증되었다. 이에 더해 이용자가 댓글, 조회수, 별점 등 다양한 방면으로 참여할 수 있어 교육적 측면에서의 가치가 더욱 높다고 할 수 있다. 동시에 웹툰은 반드시 실제 현실이 아니더라도 사회적 방식에 따라 구성, 사용, 공유되기 때문에 ‘사회적 사실’로서 충분히 연구 대상이 될 수 있다(천정웅, 2019).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2년부터 2022년까지 10년 동안 정식 연재나 출판된 웹툰 중 청소년 자살 생각을 보다 현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가정 및 학교 생활이 직접적으로 드러난 작품을 의도적 표집 방법으로 선정하였다. 연구 대상으로서 웹툰 ‘여중생A’의 대략적인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외도와 폭력을 행하는 부친과 삶에 지쳐 방임을 하는 모친 사이에서 미래의 유일한 안식처는 게임 ‘원더링 월드’이다. 뛰어난 글 재능을 지녔지만 학교에서는 따돌림을 당하고 게임 밖의 실제적인 인간관계는 마음과 달리 어렵기만 하다. 어느 순간부터 가정과 학교, 게임 속 모두에서 자기 효능감과 유대감을 모두 잃은 미래는 자살 생각을 하게 되고 마지막 시간을 정리하고자 한다. 하지만 ‘원더링 월드’ 멤버인 재회를 만나고 시간이 흐르며 다시 유대감과 삶의 애착을 느낀다. 재회 또한 부모의 냉혹한 방임과 심각한 학교 폭력을 당하며 자살 생각을 했지만 친누나의 노력으로 차츰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난다. 미래와 재회는 서로의 비슷한 상처를 마주하며 함께 얘기하고 치유해 나갈 사람이 필요했음을 깨닫는다.

이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웹툰 ‘여중생A’에 등장한 청소년 인물들의 주요 특성을 표로 정리하였다.

표 1. 웹툰 ‘여중생A’ 속 인물들의 주요 특성

이름	나이	성별	가족 관계	주요 특성
장미래	16	여	부모	가정폭력 및 부모로부터의 방임 경제적 어려움, 학교부적응 낮은 자존감, 뛰어난 글쓰기 재능 게임 속 남성 캐릭터(다크666)
현재희	18	남	부모(이혼 후 양친 모두 비동거), 누나	가정불화 및 부모로부터의 방임 경제적 여유, 학교폭력 피해 경험 낮은 자존감, 뛰어난 패션 감각 게임 속 여성 캐릭터(희나짱)

가정폭력이나 학교폭력, 아동학대 등 실제 삶 속에서 일어나는 청소년의 자살 생각 영향 요인들은 훨씬 미묘하고 복잡한 상황 속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연구 대상을 선정하는 데 이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자 했다. 웹툰 ‘여중생A’는 이러한 청소년 자살 생각의 현실적인 부분들을 매우 잘 반영한 작품으로서, 실제로 수많은 독자들의 공감과 지지를 이끌어냈다(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2017). 2015년 2월 8일부터 2017년 10월 26일까지 약 2년 8개월 동안 네이버 웹툰에 연재되며 탄탄한 스토리와 함께 정형화된 청소년 상이 아닌 실제 10대 소녀의 일상을 그대로 투영한 것처럼 담담하면서도 생생하게 그려내었다는 평을 받았다(김경애, 2019). 특히 주인공인 장미래뿐만 아니라 주변의 다른 청소년들까지 그 나이 대에 맞게 사실적으로 구현했으며, 학교폭력, 결손 가정, 게임 중독 등 실재하는 사회

문제들도 함께 현실적으로 묘사하여 사회과학의 연구 대상으로서의 가치가 높다.

지금까지 웹툰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웹툰과 고전 콘텐츠를 비교분석하거나(강명주, 이찬욱, 2018; 서보영, 2021), 웹툰 산업과 형식에 대해 논의하는(김경애, 2019; 김영숙, 2017; 박범기, 2016; 서은영, 2020; 양희정, 2019; 위근우, 2015; 이문희, 2020; 이현주, 2020; 최인이, 2020) 등 인문학적 혹은 산업적 연구뿐만 아니라 웹툰이 지닌 심리적 서사를 분석하여 사회적 현상을 조명하고자 한 연구들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 일례로 안성은(2021)의 연구에서는 웹툰 ‘우리집에 곰이 이사 왔다’ 속 두 명의 주인공이 겪는 서사를 상호성장의 과정으로 분석하여 수평적 연대와 자아정체성, 독립성 획득 등의 요소를 도출함으로써 상호성장의 의미와 양상을 제시하였다. 이에 더해 웹툰이 현대에 급부상한 대중문화로서 향후 그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이 자명하며 많은 작품들에서 가상적 배경에 실제 현실을 두루 반영하고 있는 구조로 인해 연구적 가치가 매우 높다고 강조한다. 이는 웹툰의 심리 서사를 토대로 사회적 현상을 조명하고자 하는 후속 연구의 근거가 된다.

웹툰 ‘단지’와 ‘머느라기’라는 일상툰을 중심으로 비판적 가족 재현을 분석한 구자준(2019)의 연구에서도 웹툰에 대해 기성 미디어에서 다루기 어려웠던 일상 속 폭력을 드러내고 생생하게 재현 및 증언할 수 있는 특성을 들어 서사적 연구로서의 가치를 높이려고 하였다. 즉, 웹툰은 현실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 현상을 가상적 공간을 통해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시각으로 나타내는 서사 구조를 지니고 있어 사회과학 연구에서 뛰어난 연구 자료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웹툰 ‘여중생A’의 장면과 대사를 문헌해석학적으로 분석

함으로써 청소년의 자살 생각과 주변의 비관여자들을 상황적 맥락 속에서 이해하고자 하였다. 특히 연구 자료가 시각적 문화 콘텐츠이기 때문에 특유의 관찰적 시각으로 전체 상황을 조망할 수 있어 직접적인 폭력 외에도 비관여자의 영향까지 파악하는 데 매우 용이하다.

B. 문헌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웹툰 ‘여중생A’ 속 청소년이 가정 및 학교생활에서 어떻게 자살 생각으로 이어지는지 그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문헌해석학적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는 19세기에 철학자 Dilthey가 자연세계의 규칙과는 또 다른 차이점을 나타내는 인간세계의 규칙을 이해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해석학에 대해 정신과학의 연구 방법으로서 제시한 것이다(박종엽, 2019). 즉, 해석학적 연구는 실존적 존재로서의 인간과 경험을 연구하기 위한 넓은 범위의 이론적 틀이라고 할 수 있다(경기복지재단, 2013).

이러한 해석학적 연구(hermeneutics)는 문자로 고정되어 있는 텍스트를 해석하는 방법으로 여러 형식의 기록을 그저 설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속에 내포된 의미를 해석함으로써 진정한 이해에 도달하고자 하는 연구 방법이다. 여기서 연구 대상이 되는 텍스트는 단순히 문자로 작성된 언어뿐만 아니라 그 언어에서 보여지는 상황적 맥락까지 포함된다. 텍스트 중 가장 큰 범위는 삶의 맥락(context)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텍스트가 의미하는 대상은 광범위하며, 진실 여부를 따지기보다는 전

체 맥락과 부분적 사건들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이상오, 200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화콘텐츠 중 하나인 웹툰을 이용하여 자살 생각을 지닌 청소년과 주변의 비관여자가 보이는 복잡미묘한 부분을 연구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문헌해석학적 연구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문헌해석학적 연구에서 완전한 객관성이란 존재할 수 없다. 해석을 위해서는 그 배경으로서 연구자, 즉 해석자가 기존에 가진 이해와 관점, 상식이 필연적으로 포함되는데, 이를 전이해라고 한다. 문헌해석학적 연구의 해석과 이해 과정에 있어서 전이해는 휘방꾼이 아니라 텍스트의 의미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데 절대 배제될 수 없는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된다(고진호, 1997). 특히 본 연구는 자살 분야 중에서도 청소년 자살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해석학적 패러다임은 매우 귀중한 의미를 지닐 수 있다. 청소년을 문제적 시각에서 바라보는 대신 그들이 놓인 상황과 그 맥락을 바탕으로 간주관적(intersubjective)으로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해석학적 연구는 청소년학에서 절실히 필요한 부분을 제공한다(송병국, 1999).

이와 같은 흐름에 따라 문헌해석학적 연구는 치밀한 연구 설계나 절차를 강조하기보다 인간의 삶에 대한 개방성, 감수성, 역사성, 언어성 등을 중시하며 해석학적 순환을 연구 방법으로 내세우고 있다. 해석학적 순환은 특정 사건의 바탕이 되는 전체적 맥락과 부분적 사건의 관계를 설명한 것으로, 전체적 의미가 부분적 사건을 통해 드러나지만 동시에 부분은 전체 속에서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손영수, 1998).

C. 연구 절차

텍스트 해석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문헌해석학적 연구의 절차나 단계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해석의 나선형적 순환으로 반복되어 진행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특성을 감안하여 손영수(1998)가 정리한 문헌해석학적 연구 절차를 따라 분석 및 해석을 진행하였다. 구체적인 절차는 관심영역·연구 대상·주제 선정, 자료수집, 해석학적 해석과 의미 구성, 논의, 결론 도출 및 연구 수행 보고서 정리의 5단계로 이루어진다.

먼저 첫 번째 단계인 연구 관심영역과 연구 대상, 주제 선정의 경우, 연구자의 개인적 및 학문적 동기나 배경, 사회적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한다. 본 연구자는 자살 유가족으로, 10대 시절 겪은 충격적인 경험 이후 자살 생각과 자살 시도에 대해 근본적인 원인을 지속적으로 고민해 왔다. 이러한 오랜 고민을 통해 연구 대상과 주제를 선정하였으며, 개인적인 경험에 매몰되지 않는 선에서 자살에 대한 경험적 패러다임을 전이해로서 연구에 녹여내고자 하였다. 또한 한국 사회는 세계적으로 자살률이 가장 높은 국가이며, 심지어 전체 인구에 대비했을 때 이라크 등 다른 나라에서 전쟁 중 사망한 희생자보다 한국의 자살자의 수가 훨씬 더 많은 나라이다(김태형, 2017). 특히 청소년의 자살이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현상은 자살 분야에 대한 본질적인 의미를 이해하여 그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많은 청소년들의 공감과 지지를 얻으며 사회적으로 구성된 웹툰 ‘여중생A’ 속 청소년들의 언어를 기초로 하여 그들의 삶과 죽음에 대한 생각을 이해해보고자 하였다.

두 번째 단계인 자료수집 활동을 위해 연구 대상인 웹툰 ‘여중생A’에 대한 관찰 자료뿐만 아니라 연구 주제 및 목적과 관련 있는 국내·외 논문, 도서, 뉴스 기사, 통계 자료 등 다양한 원천의 자료를 폭넓게 수집하여 분석 및 해석 과정 전반에 걸쳐 적용하였다. 특히 자살 분야의 선구자인 Joiner의 이론 외에도 자살의 중요한 요인으로 꼽히는 가정 및 학교에서의 폭력적 상황 및 비관여적 태도와 관련된 다양한 이론 및 개념들을 종합적으로 연구에 반영하여 해석자의 전이해와 더불어 연구의 체계성을 도모하고자 했다.

세 번째 단계는 해석학적 해석과 의미 구성으로, 이는 텍스트를 작성하고 이를 해석하여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이다. 여기서 텍스트는 처음 수집된 자료가 아닌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석자가 재구성하여 다시 작성한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먼저 수집된 모든 자료들을 토대로 텍스트를 작성하고 이에 대해 잠정적 의미를 부여한 뒤 그 특성에 따라 범주화하였다. 이후 의미군을 묶은 범주에 주제를 정하고 그에 맞춰 텍스트의 의미를 명료화하도록 했다. 이때 텍스트를 기반으로 한 경험적 진술과 이를 뒷받침해 줄 관련 자료들을 함께 제시하여 연구의 근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텍스트 해석과 의미 구성 과정은 한 번의 선형적 절차가 아니라 수차례 되풀이되는 순환 과정으로서 수정과 확인이 반복해서 진행되었다.

네 번째 단계인 논의에서는 이전 단계에서 구성했던 의미들을 나열 및 종합하여 하나의 전체로 통합하도록 한다. 이 과정은 해석자, 즉 연구자의 논리적인 시각과 통찰력이 필요한 단계로서 모든 자료들을 바탕으로 설명이 아닌 이해에 초점을 두고 의미를 보다 심층화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모든 편견과 가치관을 배제하고 청소년 자살과 비관여자에 대한 의미 전체를 조망하기 위해 자료 수집과 텍스트

해석, 의미 구성의 연구 활동을 2021년 10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약 1년 3개월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수행하였다.

마지막 단계인 결론 도출 및 연구 수행 보고서 정리를 위해서는 연구 대상 및 주제를 선정하는 초기 단계부터 해석을 통해 구성된 의미들을 통합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마지막 단계까지 모든 연구 수행과정을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정리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자살 생각을 지닌 청소년과 그들 주변에 존재하는 비관여자의 심리 기제 및 상황적 맥락을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담사의 외부적 개입과 처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D. 연구의 엄격성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에서는 웹툰을 텍스트로 재구성하여 청소년 자살 생각과 주변의 비관여적 태도를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인 웹툰 ‘여중생A’의 경우 한 유명 포털사이트에서 인기리에 연재를 종료하고 현재 단행본으로 출간되어 있는 작품이다. 이러한 연구의 윤리적 문제를 위해 웹툰 ‘여중생A’의 출판사 비아북에 연락을 취하여 연구 대상으로서의 저작권과 더불어 웹툰에 나오는 장면과 대사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음을 확실시하였다.

웹툰의 저작권과 연구 윤리 보호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웹툰 속 장면이나 대사 모두 그 어떤 수정 없이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분석에 있어 편향적이거나 왜곡된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하였다. 더불어 웹툰 장면과 대사를 제시할 때마다 그

러한 요소들이 등장한 상황적 맥락 또한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혼란과 왜곡을 사전에 방지하고 연구 대상이 처한 상황적 맥락의 이해를 높이고자 했다.

또한 문헌해석학적 연구 방법은 연구자의 해석이 연구 도구로서 필연적으로 포함될 수밖에 없다. 그로 인해 연구의 엄격성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의 필요성이 더욱 대두된다. 양적 연구에서는 엄격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뢰도와 타당도라는 개념을 일관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문헌해석학적 연구는 아직까지 뚜렷하게 표준화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Lincoln과 Guba(1985)는 이러한 양적 연구의 개념을 인용하여 다른 연구 방법의 엄격성을 위해 적용할 수 있는 4가지 조건을 제시하였다(윤견수, 2013). 본 연구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신빙성(내적 타당성)을 위해 연구 과정 및 결론을 웹툰 ‘여중생A’에 대한 관찰 자료뿐만 아니라 청소년 자살 생각과 가정 및 학교생활에 관한 국내·외 논문, 도서, 뉴스 기사, 통계 자료 등 광범위한 자료를 수집하여 적용하였다. 이전가능성(외적 타당성)을 위해서는 웹툰 ‘여중생A’의 주인공인 장미래, 현재희뿐만 아니라 그들과 상호작용하는 여러 등장인물을 함께 분석하여 청소년의 다양한 군상에 연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웹툰 ‘여중생A’는 다양한 청소년의 모습을 하나의 작품 안에 현실적으로 담아냈다는 평가와 폭넓은 연령대의 공감을 얻은 작품으로서 이러한 연구가 충분히 가능하다. 또한 확증가능성(객관성)을 충족하기 위해 연구자의 주관적 해석은 최대한 배제하고 웹툰 속 장면과 대사를 그대로 인용하여 다층적인 출처에서 얻은 자료들을 토대로 해석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의존가능성(신뢰성)과 관련해서 연구 과정과 결과를 모두 기록하여 연구 과정을 누구든 똑같이 반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Denzin(1978)의 다원화 전략 4가지 중 자료의 다원화와 관찰자의 다원화를 실시하여 연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홍현미라 외, 2008). 자료의 다원화를 위해서는 웹툰 ‘여중생A’의 관찰 자료를 비롯하여 관련 논문과 도서, 뉴스 기사, 통계 자료들을 폭넓게 수집하여 분석에 적용했다. 관찰자의 다원화를 이루기 위해 오랫동안 중·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며 청소년 관련 연구 및 프로그램을 진행해 오신 교수의 지도하에 연구를 진행하였다. 관찰 자료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아동학대 관련 논문 작성 경험이 있는 석사 1명의 도움으로 연구 전 과정에 걸쳐 이중 관찰 및 분석을 시행하였다.

IV. 연구 결과

자살 생각을 가진 청소년과 주변의 비관여자들을 본질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웹툰 ‘여중생A’를 자살에 대한 비관여적 태도라는 주제로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폭력적 상황, 감정이입의 고조, 감정의 몰입, 고통, 회피의 다섯 과정과 함께 각 과정에 따른 자살 생각 청소년의 경험이 도출되었다. 청소년이 자살 생각을 하기까지 모든 경험들 속에는 주변의 비관여자가 보이는 특정 태도들이 포함되어 있다.

표 2. 웹툰 ‘여중생A’ 분석 결과

자살에 대한 비관여적 태도의 다섯 과정	자살 생각 청소년의 경험	주변의 비관여자 태도
폭력적 상황	가정과 학교에서의 폭력과 방임	
감정이입의 고조	방황하며 쌓이는 자살 잠재력	
감정의 몰입	촉발 요인으로 인한 내면의 절망감	두려움, 죄책감, 묵인, 변명 및 합리화
고통	반복되는 고통에 지친 삶	
회피	고통으로부터의 벗어남	

A. 폭력적 상황

자신의 생활 환경 내에서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받은 폭력은 마음 편히 지낼 공간과 시간 하나 없이 모두 박탈하는 것과 같다. 이때 온전히 신뢰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도 전혀 없다면 삶의 의미조차 갖지 못하고 죽음을 생각하게 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자살 생각이다. 아버지를 자살로 잃은 경험이 있는 자살학자 Joiner(2005) 또한 한 사람이 자살에 이르는 과정에 세 가지 요소가 작용한다고 주장하면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자살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했다. 실제 자살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좌절된 소속감과 인식된 부담감, 그리고 여기에 습득된 자살 잠재력이 더해졌을 때 그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한다. 그중에서도 좌절된 소속감은 자신이 있을 곳이 그 어느 데도 없다고 느끼는 것이다. 모든 폭력은 이러한 좌절된 소속감을 부추기는 최고의 요인이다.



그림 3. 가정에서의 폭력적 상황(장미래)

[미래] 분명 문을 잠갔는데 분노가 내 방 안까지 흘러들어왔다.

웹툰 ‘여중생A’ 속 장미래는 어릴 적부터 이어져 온 가정폭력의 목격자이자 아동학대의 피해자이다. 부친의 신체적 폭력에 시달리는 모친을 지켜봐야 하는 정서적 폭력을 지속적으로 당하며, 모친과 마찬가지로 부친으로부터 직접적인 신체적 폭력과 언어적 폭력을 받는다. 폭력을 피해 문을 잠그고 무거운 가구로 막아두어도 그 틈새로 새어나오는 폭언에 시달리는 미래의 상황처럼, 폭력은 아무리 벗어나려 노력해도 피해자의 현실과 무의식을 지배하며 인생의 주도권을 빼앗는다. 이처럼 폭력은 단순히 노력만으로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피해자가 겉보기에 무기력해 보인다고 해서 정말로 나약한 건 아니다.

미래의 상황에서 폭력은 이러한 직접적인 것뿐만 아니라 생일을 챙겨주는 가족은 아무도 없고, 미래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이 발생한 이후 부모 모두 며칠 동안 집에 돌아오지 않으며 그 어떤 연락 한 통 없기까지 하는 등 가족으로서의 그 어떤 유대나 교류가 없이 방임된 상태로도 나타난다. 이는 폭력 이후 혼자 집에 남겨졌다가 일주일 후에 돌아온 부모를 보는 미래의 속마음에서 드러나고 있다.

[미래] 일주일 후 엄마가 돌아왔다. 물론 며칠 뒤엔 아빠도. 나는 솔직히 그동안 아빠가 우릴 때렸다는 사실을 거의 잊을 뻔했는데, 저렇게 조용히 집 안에 들어앉아 있는 걸 보니, 무슨 일이 있긴 있었구나 하는 신뢰가 들었다. 그런데, 나 엄마한테 묻고 싶은 게 있어.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밥은 잘 먹고, 잠은 잘 잤어? 내 생각 한 적은 있어?

이처럼 신체적 폭력, 언어적 폭력, 정서적 폭력, 방임 등 누군가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는 모두 폭력이 될 수 있다. 폭력 중 어느 것이 특별히 더 잔인하다거나 반대로 어느 것은 눈에 보이는 손상이 없으니 심각한 일이 아닐 거라고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특히 부친으로부터 학대를 당한 후, 미래의 마음속에서 폭력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직후에 부모가 모두 집을 나가 일주일 동안 그 어떤 연락도 받지 못하고 방치되었다는 사실이 더 상처로 다가왔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지금 당장 겉보기에 괜찮아 보일지라도 폭력은 그 어떤 종류이건 간에 무의식에 깊숙이 자리 잡아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순식간에 한 사람의 삶을 통째로 집어삼킬 수 있다.

가정에서의 폭력적 상황이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미래와 달리, 웹툰 ‘여중생 A’ 속 또 다른 주인공인 현재희는 부모로부터 직접적인 폭력을 겪지는 않았지만 경제적 지원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제공받지 못하는 방임 상태에 놓여 있다. 다음과 같은 대사는 이러한 재희의 상황을 명확히 보여준다.

[재희] “그런데 말야, 우리 부모님, 이혼했다? 아빠가 바람피웠거든. 그리고 누나는 바로 독립을 했고… 그래서 나는 집에 혼자 있던 시간이 많았어. 그때 나를 찾았던 사람은 그 애들밖에 없었어. 밤낮없이 불러주던 게 얼마나 고마웠다구.”

한국 사회는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 대체로 경제적인 부분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다.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애착 관계를 형성하는 것보다 경제적 지원을 제공

하는 게 아이의 미래와 삶에 더 나은 선택이 되리라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한 사회적 풍토로 인해 아동학대 중 방임은 아이가 기아 상태나 아사하는 경우가 아니면 그렇게까지 심각한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특히 정서적 방임은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자살은 반드시 관계의 부재에서 이루어지므로 결코 정서적 방임을 허투루 넘겨서는 안 된다. 웹툰 ‘여중생A’의 재희는 부모의 이혼 이후 경제적 지원은 넉넉했지만, 정작 가족 중 그 누구에게서도 제대로 된 관심과 세심한 애정을 받지 못한다. 웹툰에 나타난 재희의 상황과 대사를 통해 그 이유를 추론해볼 수 있다.

[재희] “나도 누나가 아빠한테 도움 안 받으려고 일 열심히 하는 거 알아.”

재희의 부모가 이혼한 사유는 부친의 외도이며, 이는 곧 가족에 대한 관계적 배신이다. 이러한 배신의 상처를 스스로 자각하고 있는가와 상관없이 모든 가족 구성원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으며 이에 대한 영향에서도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 그 결과 중 하나가 바로 재희가 방임된 상황이다. 감정이입의 패러독스 개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인간은 본능적으로 고통을 피하려 한다. 그리고 때때로 이 본능은 고통에 대한 감정과 그것을 느끼게 하는 상황, 심지어는 그 속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까지 피하게 만들어 버린다. 특히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감수성이 풍부할수록 이러한 회피 반응이 더 잘 나타난다는 사실은 비관여자나 회피하는 이가 단순히 사회적으로 말하는 ‘나쁜 사람’이라고만 단정할 수 없음을 시사한다.

부모의 이혼 이후 가족 구성원 그 누구의 정서적 지지나 관심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집에 혼자 남겨져 있다시피 한 재희의 상황에는 이러한 심리적 기제가 숨겨

져 있다고 볼 수 있다. 바쁘다는 이유로, 새로운 상황에 적응해야 한다는 이유로, 혹은 다른 갖은 이유를 들어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하지 않고, 대화를 나누지 않으며 뿔뿔이 흩어져 산다. 다른 가족 구성원을 만나서 정서적 교류를 나누는 것 자체가 이들에게는 부친의 배신과 가정의 해체라는 고통을 마주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재희의 누나인 재진 또한 고통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부친과 되도록 관련되지 않기 위해서 경제적 능력을 확보하고자 부단히 노력해왔음을 재희의 대사에서 알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한 과정에서 자신의 삶과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에 몰두한 나머지 재희와의 정서적 교류나 애정 어린 관심은 뒷전으로 밀렸다. 이와 같은 상황은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서도 나타난다. 심각한 학교 폭력을 당한 후 재희는 병원에서 가까스로 깨어나지만 곁을 지키는 사람은 오직 누나 한 명뿐이다. 병원에서 깨어난 재희가 우연히 듣게 된 누나 재진의 통화 내용을 통해 재희의 부친은 책임감으로 인한 경제적 지원은 제공할지언정 병문안 한 번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 가정에서의 폭력적 상황(현재희)

[재진] “당신 아들이 지금 겨우 깨어났다고요. 어쩐 그렇게 남 대하듯이...”

재희는 부모의 이혼 이후 가족들이 모두 흩어지고 정서적 교류가 끊긴 상태에서 고등학교에 진학한다. 입학식에서 자신에게 처음 말을 걸어준 남학생, 성호와 급속도로 친해지지만 사실 성호가 소위 말하는 ‘일진’이며 다른 아이들을 괴롭히는 주범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희는 성호를 멀리하는 대신 죄책감과 고통을 품은 채 성호의 곁을 떠나지 못한다. 가정 해체 후 경제적 지원 외에는 가족들이 그 어떤 제대로 된 교류도 없이 뿔뿔이 흩어져 버린 상황이 곧 재희에게는 누군가 자신을 떠나가는 것에 대한 공포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건강하지 못한 관계는 결국 재희가 폭력의 희생자가 됨으로써 끝을 맺는다.



그림 5. 학교에서의 폭력적 상황(현재희)

[성호] “이 새X 착한 척 존X 하는 거 봐~! ㅋㅋㅋ”

이미 한참 전에 폭력의 전조가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버림받고 싶지 않은 심리는 재희가 이러한 상황을 부인하고 상대의 잘못을 자신의 것으로 여겨 스스로가 더 나은 행동을 한다면 상대도 달라질 거라 착각하게 만들어 상황은 더욱 악화되기에 이른다. 폭력에 제대로 저항하지 못함으로써 피해자를 만만히 본 가해자가 폭력의 빈도나 강도를 서서히 높여가는 것이다. 즉, 이러한 상황은 가정에서의 방임이 학교 폭력으로까지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

[성호] “이렇게 재미없는 놈은 맞아야 돼! 그치?”

청소년에게 가정과 학교는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미시 체계이다. 당연하게도 가정에서의 무너진 관계와 위축

된 자아는 학교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이것은 재희뿐만 아니라 폭행과 폭언, 방임 등 복합적인 폭력 상황에 놓인 미래 또한 마찬가지이다.

[노란] “너 재 또라이인 거 몰라?”

[노란] “어머! 아직도 동복 입는 애가 있나?”

[노란] “너 지이이인짜 신기하다! 남자랑 노는 게 그렇게 좋아?”

직접적인 폭력을 휘두르는 것은 아니지만 같은 반에서 필연적으로 마주쳐야 하는 노란은 미래의 표정과 행동 하나하나를 지적하고 비웃으며 무시한다. 그러나 미래는 이를 직접적으로 반박하거나 저항하는 대신 몸을 움츠리며 노란을 피해 구석으로 숨는다. 이는 어릴 적부터 이어져 온 가정에서의 폭력에 미래가 대처하는 방식과 매우 유사하다. 어른인 부친의 폭력에 어린 미래가 할 수 있는 것은 방문을 잠그고 눈에 띄지 않게 잘 숨어서 시간이 가기를 기다리며 상황을 회피하는 것뿐이다. 이처럼 가정에서의 폭력 상황은 학교에까지 그 영향이 이어지는데, 직접적인 폭력 외에도 방임 상황 또한 미래의 학교생활과 이어질 수 있다. 준비물을 잘 챙기지 못하고, 어른의 보살핌을 받지 못한 미래의 상황은 다른 아이들에게 무시 받는 계기로 작용한다.



그림 6. 학교에서의 폭력적 상황(장미래)

[노란] 재(미래)한테도 1학년 때는 친구가 있었거든. 이름이 현주였나... 뭐, 그 애도 엄청 착한 애니까 재랑 놀아줬겠지. 그런데 둘이 싸워서 결국엔 갈라졌대. 일방적인 장미래 꺾판이 맞겠지만. 사건은 이래. 어느 날 현주가... ‘저기, 애들아~ 미래네 집이 지금 많이 어렵대~ 그래서 말인데,’라면서 성금을 모았는데, 장미래가 거기에 완전 열이 받은 거지. 지 말로는 자기 집 어려운 걸 현주한테만 비밀로 말한 거라 화가 났다는데, 그게 이유가 되니? 장미래 가난한 건 그 반 애들이 다 알고 있었을걸.

2년 전, 친한 친구로 믿고 자신의 고민과 어려움에 대한 얘기를 나누었으나 정작 현주는 자신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이를 같은 반 아이들 전체 앞에서 대놓고 말하며 모금 활동까지 벌였다. 이에 대한 분노와 무시당했다는 수치심 앞에서 미래는 분명 당연한 분노를 보였지만, 아이들이 주목한 것은 자신들이 건넨 호의가 쓰레기통에 처박혔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호의를 보였음에도 이것에 화를 낸 미래는 이상

하고 또라이 같은 아이가 되었다. 이후 학년을 올라가더라도 ‘노란’처럼 이때 일어난 상황과 소문을 알고 있는 이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함으로써 미래는 이 악순환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주요 이야기가 진행되는 시점인 중학교 3학년의 미래는 노란의 폭언과 비웃음에 일관되게 회피적 태도를 취한다. 그러나 미래와 같은 초등학교를 다닌 학생들의 대사에서 미래는 사뭇 다른 사람처럼 묘사된다. 초등학교 시절의 미래는 여러 글짓기 대회에서 상을 타고 교내 뿐 아니라 학교 외부에서 개최한 대회까지 출전할 정도로 작문 실력이 뛰어났다. 노란이 지금의 미래를 하찮게 여기는 태도에 “재 뭔데 저렇게 사람을 개무시하냐?”라며 어이없어 하는 아이들의 말과 행동은 미래가 노란의 생각처럼 ‘음침하고, 이상하고, 그래서 무시해도 될 것 같은’ 사람이 아님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즉, 미래는 처음부터 폭력에 무기력하고 회피적인 소심한 사람이 아니었다. 비록 부친의 폭력과 가난한 가정환경을 숨기고 싶어 하며 약간의 위축감은 느끼고 있었더라도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며 존재감 있는 활동을 해왔다.

미래의 ‘진짜’ 성격과 모습은 게임 속에서도 분명히 드러난다. 게임 ‘원더링 월드’의 시초적인 위치에 놓여 있는 길드에서 거의 부길드 마스터로 대우받으며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중재하는 미래의 모습은 같은 사람, 같은 나이임에도 현실 세상 속과 너무나 달라 보인다. 이렇듯 미래가 학교에서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변해 버린 시기와 계기에 대해서 노란이 백합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와 미래의 독백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미래] …! 지금 다들… 날 의심하는 거야? 이 눈빛들을 본 적이 있어… 중학교 1

학년 때... 아이들이 돈을 모아준 모금함을 쓰레기통에 처박았을 때... 그 일 이후로 나는 계속 혼자가 되었다. 다시 친구를 사귀는 게 불가능한 일이었지.

미래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상황에 힘겨워할 동안, 백합이나 초등학교 동창들은 이상한 낯새를 눈치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는다. 노란의 괴롭힘을 제지하거나 미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꾸려는 적극적인 행동은 보이지 않고 속으로만 생각하거나 자신들끼리 이야기하는 것이 끝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호의적이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비관여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재한 것과 같은 상황이 되어버린다.

B. 감정이입의 고조

인간에게는 고통을 피하고자 하는 본능이 있다. 신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아프고 힘든 것은 누구나 되도록 겪지 않고 싶은 것이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피할 수 없는 고통에 맞닥뜨리게 된 경우, 인간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방어 기제를 발동시킨다. 고통스러운 외부 상황과 사람, 세상을 원망하거나 자신의 고통과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사람에게 화풀이를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고통 속에 놓인 자기 자신의 탓으로 돌려 스스로를 미워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자살이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한 선택이라는 점에서 고통에 직면한 인간의 심리 기제는 다각적으로 주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임상심리학자이자 자살학자인 Joiner(2005)가 제시한 자살 행동을 설명하는 모델에 따르면, 자살의 3가지 요인은 좌절된 소속감, 인식된 부담감, 습득된 자살 잠재력이다. 좌절된 소속감은 ‘자기 자신’이 있을 곳이 없다는 생각이고, 인식된 부담감은 ‘자기 자신’이 주변 사람들에게 짐이라는 느낌이며, 습득된 자살 잠재력은 ‘자기 자신’을 해치는데 있어 거부감과 두려움을 없앨 수 있도록 기여한 경험이다. 모두 스스로의 존재에 대한 회의와 부정이다.

[노란] “아까 진짜 어이없었잖아. 아니 내가 (미래한테) 비듬이 있어서 있다 했는데 송재민이 갑자기 참견하는 거야. 내가 뭐 괜히 그랬나? 그냥 비듬 있으니까 씻고 다니라고 말한 거지. ㅋㅋ 그나마 나니까 신경 써준다고 말한 거 아니겠어? 꼭 그런 애들 있어 남자랑만 노는... 남자 밝히는 애들!”

[노란] “아무튼 쟈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 이상해. ㅋㅋ 아까 봤어? 걷는 것까지 이상하다니까?”

[예진] “왜 ㅋㅋ 숨쉬는 것도 어색하다고 하지?”

[노란] “아 ㅋㅋㅋ 그럴까? 쟈 그럴 것 같아. 난 개랑 나랑 같은 성씨인 것도 짜증나. 장씨 가문의 수치라고!”

학교 소풍에서조차 노란의 괴롭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미래는 점점 주눅이 들고 결국에는 혼자 밥 먹는 것마저 눈치가 보여 도망치듯 화장실로 향한다. 하지만 그 또한 얼마 지나지 않아 노란이 화장실에 들어오면서 마음 놓고 숨어 있으려던

계획까지 무산된다. 자신을 비웃으며 뒷담화하는 내용이 담긴 노란의 목소리가 고스란히 화장실 문틈으로 들려오며 소외된 미래를 조용히 무너뜨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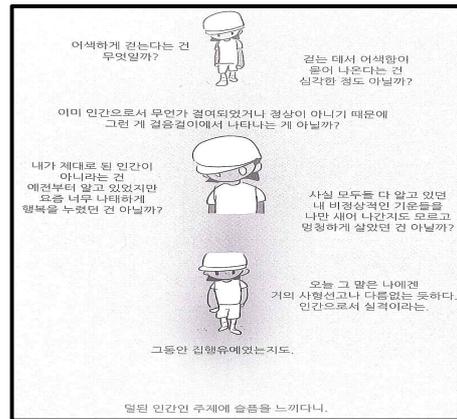


그림 7. 자살 생각 청소년의 감정이입의 고조(장미래)

[미래] 어색하게 걷는다는 건 무엇일까? 걷는 데서 어색함이 묻어 나온다는 건 심각한 정도 아닐까? 아마 인간으로서 무언가 결여되었거나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게 걸음걸이에서 나타나는 게 아닐까? 내가 제대로 된 인간이 아니라는 건 예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요즘 너무 나태하게 행복을 누렸던 건 아닐까? 사실 모두들 다 알고 있던 내 비정상적인 기운들을 나만 새어 나간지도 모르고 멍청하게 살았던 건 아닐까? 오늘 그 말은 나에게 거의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듯하다. 인간으로서 실격이라는. 그동안 집행유예였는지도. 덜된 인간인 주제에 슬픔을 느끼다니.

청소년 자살의 특징으로 여겨지는 충동성 때문에 자살자에 대한 오해가 존재한다. 자살을 결심하고 행동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대부분 순식간에 이루어지기에 사

전 계획이 없이 ‘충동적’으로 자살했을 거라는 추측이다. 그러나 과연 자살이 정말 기존에 자살 생각이나 계획이 전혀 없었던 상태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보면, 그것은 논리적으로도 실제로도 불가능하다. 거의 모든 자살은 실행 전에 예행연습을 거치는데, 이는 투신할 장소를 찾아가보거나 약물을 시도해보는 등 죽음에 가까워지는 연습을 함으로써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다 (유규진, 2020). 자살 연구자인 Joiner(2012) 또한 습득된 자살 잠재력이라는 명칭으로 자살에 대한 예행연습이 실제적인 자살 행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했다. 이처럼 인간은 누구나 고통을 피하려 하고 죽음을 두려워한다. 자살자 또한 예외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예행연습조차 없이 자살이 제대로 이루어지기란 매우 힘들다.

게다가 자살의 원인이 되는 심리적 고통은 대부분 자살자의 삶에서 오랜 시간 동안 쌓여온 관계의 부재, 사회적 소외감에서 기인한 경우가 많다. 웹툰 ‘여중생A’ 속 미래의 상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러한 고독감은 일상생활에 깊게 박혀 있어 시시때때로 괴롭게 만든다. 학교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 심지어는 좋아하는 게임을 할 때에도 미래가 느끼는 소외감과 고독은 드러난다.

[미래] 이 시간대의 아파트 복도는 사람의 기분을 더럽게 한다. 줄지어 선 집들에서 찌개 냄새와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6시 반 내 고향’ 소리가 당연하다는 듯이 어그러져 흘러나온다. ‘이게 바로 행복한 저녁끼의 가정이다’라는 것처럼.

[미래] 우리 가족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게임이 하나 있다. 피씨방 사장님이 시켜

줬던 게임인데, 내가 본 적 없는 가족의 모습으로 게임을 시작해야 하는 것부터 싫었다. 청소년 혼자서는 가족을 형성할 수 없는 것도 짜증났다. 그래서 대충 가족을 만들었더니, 애가 문제였다. 청구서에 쫓기느라 부모는 바빠 죽겠는데, 애는 뻑하면 탈이 나서 복지국 직원이 데려가기 일쑤였다. 부모는 슬퍼하느라 시간을 날렸다. 게임에서 애는 나약하고 보살핌받아야 하는 존재였다. 그것도 당연하다는 듯이. 앞으로 그런 상황이 몇 개나 더 있을까 생각하니 그냥 그런 게임은 하기가 싫어졌다. 행복한 가정을 게임으로 배우긴 싫었다. 스위치를 내리면 그것으로 끝인.

미래의 집에는 따뜻하게 반겨주는 커녕 항상 만취한 상태에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 같은 부친과 언제나 바쁘고 미래를 신경 써 주지 못하는 모친 사이에서 미래는 혼자인 것과 다름없다. 이처럼 가족과 친구 등 심리적으로 가까운 비관여자들로부터의 소외는 청소년에게 자살 잠재력이 쌓이기 위한 발판을 마련해준다. 소외된 시간 동안 청소년은 자책감에 시달리며 감정이입의 고조를 겪고 여행 연습이 될 수 있는 특정 장소에 친숙해지며 자살 잠재력이 형성되어 간다.

성적 비관, 경제적 문제, 모방 자살 등 자살자 혹은 자살시도자가 직접 언급했거나 그렇게 추측되는 자살 원인 중 사회적 관계와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것들도 그 이면에는 모두 관계의 단절이나 파탄, 고독과 같은 긴 시간에 걸친 사회적 욕구의 좌절이 깊게 자리 잡고 있다(김태형, 2017). 청소년이 성적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자살하는 것도 성적이 나쁘면 부모가 자신을 사랑해주지 않을 것이고 학벌주의 사회에서도 버림받을 것이라는 생각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경제적 문제 또한 이로 인해 자신이 주변 사람들에게 버림받거나 짐이 되어버리고 물질만능주의 사회에서

실패자로서 소외된다는 생각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심지어는 모방 자살의 경우에도 오랜 시간 고독과 고통에서 힘들어하다가 타인의 자살 사건을 우연히 접하면서 그가 느꼈을 고통에 공감하고 자신의 불행을 극대화하여 느끼며 ‘죽음’에 대해 하나의 선택할 수 있는 해결 방법으로 여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즉, 이러한 표면적인 이유들은 모두 고독과 관계의 부재라는 사회적 욕구의 좌절로 인한 자살 잠재력이 이미 존재한 상태에서 촉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자살에서의 충동성이란 흔히 생각하는 ‘훗김에 저지른다’는 의미보다는 기존에 갖고 있던 자살 생각과 잠재력을 촉발하는 상황 이후에 실제 자살 시도로 이어지는 과정이 매우 빠름을 나타낸다. 웹툰 ‘여중생A’ 속 재희의 독백을 통해 고통스러운 감정과 생각이 어떠한 방식으로 순식간에 전개되는지 그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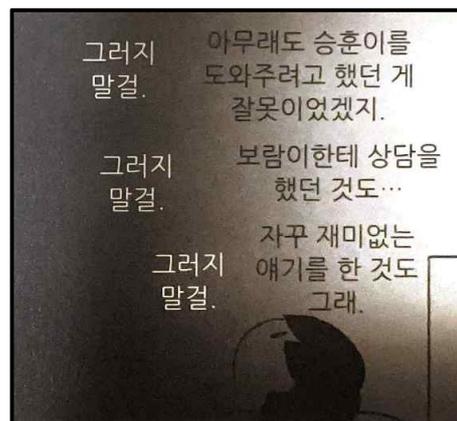


그림 8. 자살 생각 청소년의 감정이입의 고조(현재희)

[재희]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아무래도 승훈이를 도와주려고 했던 게 잘못이

있겠지. 그러지 말걸. 보람이한테 상담을 했던 것도... 그러지 말걸. 자꾸 재미없는 얘기를 한 것도 그래. 그러지 말걸.

친구라고 생각했던 아이들에게 믿음을 배신당하고 심각한 폭력을 당한 후, 재희는 개인 SNS에 자신이 무리에서 배제되어 있다는 사실과 함께 폭력이 일어난 바로 다음 날 자신만 제외하고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친구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발견한다. 게다가 전화조차 받지 않는 아이들의 모습에 더 이상은 상황을 외면하고 부정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른다. 그 이전까지는 아이들이 아무리 자신을 무시하고 비웃으며 괴롭히더라도 여전히 ‘친구’라는 생각에 참고 자신이 더 잘해주면 관계가 좋아질 거라 생각했으나, 심각한 폭력과 일방적인 관계 단절 이후에야 비로소 그런 상황은 영원히 오지 않는다는 걸 깨달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점을 자신에게서 찾으려는 노력은 여전히 아이들의 폭력과 관계 단절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부정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잘못이 타인에게 있는 경우에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그 어디에도 없지만,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면 상황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폭력 상황 자체도 중요하지만 자살이라는 현상에서 무엇보다 주목해야 하는 것은 거기서 느끼는 감정이라는 점에서 재희의 이러한 인식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재희] 애들이랑 노는 건 재밌지만 힘든 일이기도 했어. 최성호는 항상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싶어 했거든. ‘내가 돈을 달라고 한 건 아니지만 어차피 저 애는 날 똑같은 놈이라고 생각하겠지.’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괴로웠어. 나는 모두에게 잘

해주고 싶어 했잖아? 그건 반 애들한테도 똑같은데... 성호는 항상 교실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식이었어.

상황 자체보다도 그 속에서 경험하는 감정이 특정 행동을 이끌어내는데 더 큰 역할을 한다는 점은 자살자와 폭력의 피해자뿐만 아니라 비관여자에게도 작용하는 이야기다. 재희는 가정에서의 방임과 학교 폭력의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다른 학생들이 학교 폭력을 당하는 장면을 여러 차례 목격한 비관여자이기도 하다. 고등학교에 진학해 처음으로 말을 걸어주고 친해진 아이들이 소위 말하는 '일진'이었기 때문에 재희 본인이 직접적으로 아이들을 괴롭히지는 않았어도 가해자와 함께 다니며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폭력에 일조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수차례 바로 옆에서 폭력을 목격했음에도 재희는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도움의 손길을 한 번도 내밀지 못한다. 그렇다고 재희가 특별히 자기본위의 성격이라거나 무관심한 성정을 가진 것도 아니다. 오히려 재희의 성향은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다른 사람들을 위하고 잘해주려 하는 것에 가깝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희는 비관여자로서 자신의 눈앞에서 자행되는 폭력에 그 어떤 제대로 된 행동도 취하지 못한다. 자신이 고등학교에서 겪었던 일들을 미래에게 말해주는 재희의 대사에는 이러한 스스로의 상황에 대한 고통과 괴로움이 고스란히 나타나 있다. 게다가 비관여자는 폭력적 상황의 직접적인 가해자도, 피해자도 아니기에 함부로 끼어들 수 없는 분위기가 조성된다.

C. 감정의 몰입

비관여자는 분명 피해자가 느끼는 고통에 대해 감정을 느끼고 있다. 이는 남편의 심한 가정폭력에 내내 시달려 온 미래의 모친 또한 마찬가지이다. 웹툰 ‘여중생A’에 나타난 대부분의 장면에서 미래의 모친은 미래와 대화를 나누기는커녕 때로는 눈조차 제대로 맞추지 못한다. 하지만 드물게 미래에게 건네는 말에는 딸에 대한 애정과 죄책감 같은 것들이 분명 엿보인다.

[미래 모친] “엄마가 해준 것도 없는데, 우리 딸 참 훌륭하지.”

[미래 모친] “방해되겠다, 엄마 가볼게.”

[미래] “어, 응...”

미래 역시 부친의 직접적인 육체적·언어적 폭력에 시달리지만, 그만큼이나 가정에서 모친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부친의 모습을 고스란히 목격한 비관여자이기도 하다. 미래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오랜 시간 이어져 온 폭력은 여전히 어린 미래가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다. 심지어 인터넷 소설 작가로 첫 출판 계약을 하고 그 계약금으로 모친에게 처음 선물을 산 행복한 날조차 미래는 폭력에서 자유롭지 못한다. 현관문으로 보이는 부친의 모습에 모친이 미래를 밀치고 혼자서 폭력을 감내하는 동안 미래가 할 수 있는 것은 복도 계단에 쭈그리고 앉아 심각한 폭력이 충분히 예상되고도 남는 소리를 그대로 듣고 있는 것뿐이다. 이러한 상황 속 미래의 심

정이 폭력 이후 집안에 발을 들였을 때의 독백과 그 와중에도 글을 쓰려 모니터 앞에 앉았을 때 소설 대신 쓰여진 문장 부호가 엉망진창인 글로 대변된다.

[미래] 엄마와 나의 유리 같은 행복은 이렇게 삼시간에 깨어졌다. 우리는 그 윈인이 서로에게 있다는 것처럼 죄인 된 듯 눈길을 피하고 있었다.

[미래] 엄마가 아까날 밀쳤을때 나는 솔직히 안도하고있었다 맞는 엄마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것? 아니 솔직하자 내가 맞지 않아도 된다는 나는쓰레기다 이런 쓰레기가 쓰는 글도 쓰레기고 나는 아무 도움도 안 되는

비관여자의 입장에서 확실한 것은 그들이 정말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해서 비관여자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피해자의 감정과 상황에 깊게 이입하며 자신이 피해자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한다는 죄책감과 더불어 폭력이 자신에게 행해진 게 아니라는 사실에 못내 안도하는 스스로에 대한 혐오감에 시달리고 있다. 미래는 이런 자신을 ‘쓰레기’라고 표현하며 자신의 뛰어난 재능조차 비하하는 것으로 죄책감과 혐오감을 나타낸다.

다시 말해 비관여자들은 폭력적인 상황에 대해 분명히 인지하고 있으며 피해자만큼이나 고통스러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관여자의 태도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자살이 폭력과 방임을 포함한 각종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발생하며, 비관여자는 이에 대한 해결의 열쇠이기 때문이다. 비관여자는 한 발 뒤에 물러서서 지켜보기만 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피해자의 손을 잡고 폭력에 맞서거나 멈추게

할 수도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비관여자가 도움이 필요한 이에게 손을 내밀어야 한다.

‘폭력적 상황’ 과정에서 언급된 상황들 중 미래가 중학교 1학년 때 겪었던 경험에서도 나타났듯이 공감 능력이 부족한 호의는 분명 당사자에게 상처를 남기기도 하지만 때로는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도움이 손길을 내밀게 만들기도 한다. 오히려 바로 옆에서 폭력을 목격하고 피해자가 느끼는 고통에 높은 수준으로 공감한 상태에서의 미래와 재회는 선불리 나서지 못하고 외면한다. 이는 감정, 특히 고통을 느끼는 것이 반드시 좋은 방향으로만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타인이 당하는 고통에 공감하고 똑같이 그 상황을 벗어나고 싶어 하는 마음이 곧 그 사람을 돕고자 하는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도리어 자신이 상황을 해결할 만한 힘과 능력이 없다고 느끼면서 고통스러운 감정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점은 자살 생각을 하는 청소년에게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Joiner(2005)가 주장한 자살의 세 가지 요인들이 전부 상황 그 자체보다도 ‘감정과 느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같은 상황이라도 어떠한 감정과 느낌을 갖느냐는 전혀 다른 결론을 내리게 만든다. 자살 생각 청소년도, 그들 주변에 있었던 수많은 비관여자들도 모두 자신이 경험하는 이 감정과 느낌에 따라 특정 행동적 결과를 도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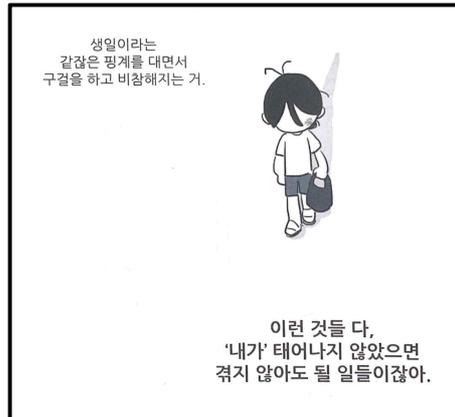


그림 9. 자살 생각 청소년의 감정의 몰입(장미래)

[미래 부친] “꽃도 보기 싫으니까 꺼져.”

[미래] “아빠... 나 1,000원만 주시면 안 돼요?”

[미래 부친] “뭐?”

[미래] “나 오늘 새, 생일... 이니까...”

[미래 부친] “뭐? 하하하 하하하하! 내가 태어난 것부터가 실수인데, 선물은 무슨 놈의 얼어죽을 선물이나?”

[미래] 어찌면 아빠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 생리대는 뭇같이 비싸고, 여자니까 또 그걸 사야 하고, 생일이라는 갈잡은 핑계를 대면서 구걸을 하고 비참해지는 거. 이런 것들 다,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겪지 않아도 될 일들이잖아.

고통을 느끼는 것은 위험 상황을 피하고 상처에서 회복될 기회를 주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한다. 하지만 그것이 마음의 고통인 경우에는, 때때로 상황을 악화시킨

다. 인간이기에 당연히 느끼는 신체적·언어적·정서적 폭력에 따른 고통스러운 감정은 반복될수록 앞으로는 폭력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란 예감과 무기력, 절망감을 가져온다. 여기에 더해 특별히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는 사람이 곁에 아무도 없어 관계의 부재 상태에 이르면, 결국 고통을 끝내기 위한 결단으로써 자살을 생각하게 되는 발판이 마련된다. 이처럼 자살로 가는 과정은 ‘이번만은 다르지 않을까’ 하는 희망과 그것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절망이 계속 되풀이되면서 견고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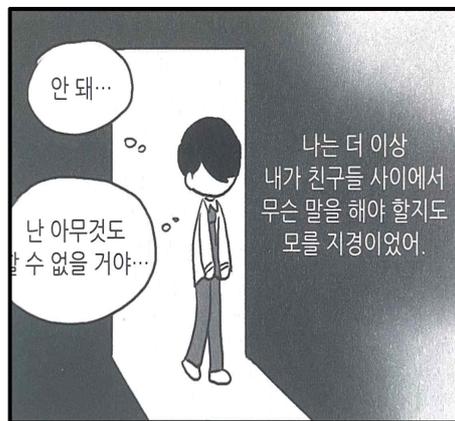


그림 10. 자살 생각 청소년의 감정의 몰입(현재희)

[재희] ‘안 돼...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야...’ 나는 더 이상 내가 친구들과 사이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를 지경이었어.

미래와 재희 모두 가정과 학교에서 일어나는 폭력적인 상황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그 어떤 것도 없다고 느끼며 절망스러운 감정을 느낀다. 이대로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더 이상 나아질 것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도 없으리라 예감한

다. 모두 자기효능감과 통제감의 상실로 귀결된다. 이와 같은 ‘감정과 느낌’은 자살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다. 설령 가해자에게 보복하기 위한 자살이라 해도 그 밑바탕에는 자신이 여기서 물러날 곳도 있을 곳도 없다는 느낌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미래] 인간은 왜 생각하는 동물인 걸까. 나 같은 사람한테 그런 거 필요 없는데. 술을 겨우 건네고 남의 집 화장실을 빌려쓰듯이 별별거리며 오줌을 싸는 나를 생각한다. 그 후로도 잠들기 전까지 이어질 폭언과 난동을 상상한다. 이게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지가 가장 괴로운 대목이다.

특히 ‘감정과 느낌’이라는 심리적 요소의 특성상 여러 과정을 차근차근 밟아 올라가며 천천히 감정이 진행된다기보다는 눈 깜짝할 찰나에 감정이입의 고조, 감정의 몰입, 고통을 연속적으로 겪는 등 매우 빠른 속도로 순식간에 전개되기 때문에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심리 기제가 바로 자살의 주요 특성 중 하나로 언급되는 충동성으로서, 평소 폭력적 상황에 자주 노출되면서 누적되어 온 고통스러운 감정과 자신에 대한 공격성이 특정한 촉발 요인을 만나 폭발하듯 번짐으로써 실제 자살 시도로 이어지는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과정 중에 나타나는 자살 징후는 매우 은밀하고 약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비관여자가 약간의 이상함을 느껴도 설마하는 마음에 제대로 개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와 같은 비관여적 태도는 다시 청소년에게 자살의 촉발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세심한 관심과 애정이 필요하다.

D. 고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숨을 쉬고 어제와 비슷한 일상을 보내는 그 찰나에도 누군가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자살이 반드시 한 가지 이유로 일어난다고 할 수는 없지만,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가 모든 자살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존재한다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 어째서, 어떠한 고통이 그들을 자살로 몰고 가는지 알아야 비로소 자살을 생각하고 시도하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도움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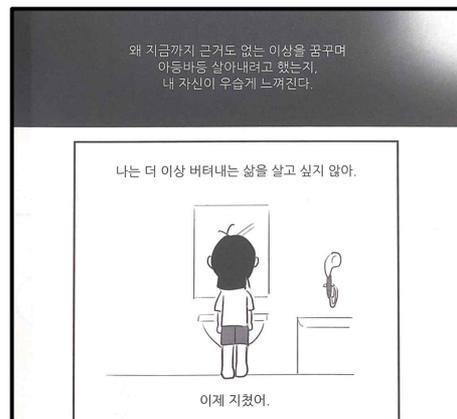


그림 11. 자살 생각 청소년의 고통(장미래)

[미래] 그동안 너무 안일하게 살았다는 생각이 든다. 복에 겨운 생활을 했지. 이제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건 불행 뿐이다. 지금은 베타테스트라느니 정식이 아니라느니 거울 앞에서 했던 어이없는 다짐들이 떠오른다. 이태양은 이백합과 사귀게

되었고, 아빠에게 맞을 땐 아픔을 느낀다. 이게 바로 현실이니까. 왜 지금까지 근거도 없는 이상을 꿈꾸며 아등바등 살아내려고 했는지, 내 자신이 우습게 여겨진다. 나는 더 이상 버텨내는 삶을 살고 싶지 않아. 이제 지쳤어.

자살의 원인이 되는 고통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 어떤 형태의 고통이든 자살자들에게는 모두 폭력으로 작용한다. 웹툰 ‘여중생A’의 미래는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폭력을 겪고 있다. 하지만 단순히 폭력만으로 자살의 충분조건이 갖춰지는 것은 아니다. 미래에겐 집에서 폭력을 휘두르는 부친도 있지만 그 곁에는 모친도 있었고, 학교에서는 따돌림과 험담을 하는 ‘장노란’이 있지만 동시에 함께 대화를 나누는 ‘이태양’과 미래의 재능을 알아보고 다가오는 ‘이백합’도 있었다. 거기에 가정과 학교에서 겪는 고통을 잠시 잊게 해줄 뿐만 아니라 나날이 마모되어 가는 자존감과 성취감을 고쳐시켜주고 유대감을 형성해준 게임 속 길드원들도 분명 가상에서나마 존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가 삶에 대한 목적과 방향성, 끝내는 희망까지 잃어버리게 된 것에는 오히려 직접적인 폭력보다도 곁을 지키던 그들의 영향이 컸다.

미래의 모친은 기본적인 생활비는 챙겨주지만 그 외에 가족으로서 유대나 애정을 느낄 만한 정서적 지지는 제공하지 않는다. 미래에게 행해진 부친의 직접적 폭력 직후 집을 나가 며칠이나 돌아오지 않은 것도 모자라 그동안 간단한 연락 한 통조차 없었던 모습, 가족끼리 외식 한 번도 제대로 한 적이 없어 레스토랑에서 밥 먹는 것조차 어색해하는 미래의 태도 등 웹툰 ‘여중생A’ 속 수많은 장면들에서 이러한 미래의 결핍이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존재감 없는 학교생활에서 거의 유일하

게 다가와 준 백합과 태양이, 실은 미래의 재능에 대한 환상이나 따돌림을 당하는 아이에게 느끼는 동정심 등 미래 자신이 생각한 친구로서의 유대와는 전혀 결을 달리 하고 있었음은 결핍이 깊어지는 계기가 된다.

[미래] 자신의 취향을 구축해온 사람은 아무에게나 그것을 전파하지 않는다. 내가 이태양에게 화가 나는 것도 우린 뭔가 통할 거라고 생각해서 건넨 것들 중 실상 아무것도 축적된 것은 없고, 심지어 친구로서의 우애를 쌓아왔는지도 불분명해졌다는 점이다. 우리가 정말 친구였다면 이백합에 대해 언질이라도 들었을 테니까. 이태양에게 나는 대체, 어떤 존재였던 걸까?

[미래] 그럼 이백합은 내가 그때 쓴 글대로, 아빠한테 맞은 거라든가, 우리집 사정을 알고 있다는 건가. 그리고 그걸로, 약점을 잡으려고 했다는 거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돌이니만큼 서로 통하는 무언가가 있었겠지. 그렇지 않고서야, 이태양이 이백합을 갑자기 좋아한다는 게 설명이 안 되니까. 사람이 오래도록 단 걸 먹지 못하다가 갑자기 접하면, 불 옆쪽에서 극심한 통증을 느끼게 된다. 책임지지 않을 거면, 그렇게 따듯하지나 말 것이지.

그동안 자신이 두 사람과 나누었다고 생각한 우정과 유대가 쌍방향이 아닌 혼자만의 착각이었다는 수치심과 소외감은 미래에게 단순히 고통스러움을 넘어서 자신과 삶에 대한 허무와 회의로까지 이어진다. 특히 자살 생각에 있어 두려움보다 스스로에 대한 감정인 부끄러움이 미치는 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정지선, 2021), 이러

한 감정의 흐름은 더욱 위험하다. 그 직후 외면하고 싶은 현실 대신 선택한 게임 속 세상에서조차 비슷한 상황이 겹치게 되면서 이와 같은 감정은 극에 달한다. 자신이 이해받고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로 여겼던 게임 속 세상에 대한 배신감은 미래의 절망스런 독백으로 드러나고 있다.

[미래] 결국 여기서도... 나는 아무것도 몰랐던 거야...

가정과 학교, 심지어는 유희의 대상이자 미래에게는 본연의 자아를 내보일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던 게임에서까지 느낀 배신감과 소외감은 장기간에 걸쳐 쌓인 상처 위에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일어난 상처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리는 형태로 묘사될 수 있다. 자살의 촉발 조건으로 언급되는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이어져 온 폭력과 더불어 특별한 계기가 바로 이렇게 맞물려 형성되는 것이다. 이는 재희 또한 마찬가지이다. 미래와 재희가 서로의 사정을 알게 된 이후 재희의 누나인 재진이 미래에게 해준 말에서 그 단면을 엿볼 수 있다.

[재진] “재희가 그런 일을 당하고 나서... 꽤 충격이 컸거든요. 재희는 걸으론 전혀 그런 내색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재희와 정말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재희의 외로움이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형성된 것인지 알고 싶었거든요. 재희는 부모님이 이혼한 이후부터 사람들이 자신을 떠날까봐 항상 불안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렇게 필사적으로 노력을 했던 거겠죠. 안타까운 일이지만, 사람의 성격은 유년기 때 굳어져버리는 게 아닐까요. 자존감이 낮은 아이도, 분노 대신 자책을 하는

아이도 그런 건 다 유년기에 정해져버리는 거예요. 그때 가장 가까이 있는 주위 사람에게 의해서요.”

부모의 이혼 이후 재진은 가족을 배신한 부친에게 도움을 받지 않고 홀로서기 위해 열심히 고군분투했고, 그 사이 재희와의 유대나 대화는 결여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재희가 심각한 학교폭력으로 사흘 동안 정신을 잃고 청력에 큰 후유증까지 남는 사건이 발생하자 비로소 재진은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게 된다. 평상시 유난히 또래가 좋아할 만한 노래나 영화 등 열심히 정보를 모으던 재희의 모습이 실은 다른 아이들과 대화를 이어나가는 것을 넘어서 버림받지 않기 위한 발버둥이 었다는 걸 깨달은 것이다.

이렇듯 자살 생각 청소년의 주변에는 가족과 친구 등 많은 비관여자들이 존재했지만, 그들 자신의 사정과 타인에 대한 무심한 태도로 인해 결과적으로는 청소년을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방관하게 되었다. 이는 비관여자들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든 상관없이 일어난 결과이다.



그림 12. 자살 생각 청소년의 고통(현재희)

[재희] “만약에 누나 친구 중에 재미없는 말만 하는 놈이 있어. 그럼, 그놈이 입만 열어도 싫겠지? …한다면 말야, 그것도 진짜 때리고 싶겠지? 아니면…”

[재희] 나는 정말로 내가 이렇게 된 이유를 알고 싶었어. 그렇잖아. 내가 뭔가 잘못을 했으니까 이 정도로 맞았을 거 아냐.

[재희] “역시 얼굴이 문제가? 얼굴 맞았으면 좋았을걸, 성형하게.”

[재진] “현재희! 내가 잘못된 건 아무것도 없어! 뭘 했어도 이렇게 사람을 만신창이를 만들어놓을 이유는 못 된다구! 넌 그냥… 운이 좋지 않았던 것뿐이야.”

[재희] “차라리… 그냥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라고 해줘… 안 그럼 내가 너무 억울하잖아… 그게 더 견디기 힘들 것 같은데…”

폭력의 희생자 중 대부분이 자책을 한다. 가해자에게 분노하고 있든 아니든 간에

모두 자책의 감정을 갖고 있다. 자신이 조금 더 힘이 있었다면, 조금 더 잘했다라면 상황을 해결하고 벗어날 수 있었으리라는 생각이다. 하지만 이 생각의 가장 핵심은 고통에 대한 여러 대안들 중 자신을 비난하는 것이 대개 더 마음을 편하게 해준다는 데 있다. 자신의 자존감을 깎아먹으면서까지 타인보다 자신에게 화살촉을 돌리는 이유는 인간이 언제나 자기 인생에 대한 통제감을 확보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의미 치료를 창시한 Frankl(1946)에 의하면, 자신이 그 무엇도 행할 수 없고 그저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사람은 자기 스스로의 감정과 생각, 태도는 선택할 수 있다. 이는 상황은 바꿀 수 없어도 태도를 바꿈으로써 자신의 인생에 대한 통제감을 갖고자 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과 학교라는 밀접한 미시 체계 내에서의 폭력에 대항하는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은 자기 비하와 자책을 선택한다. 자기 자신 말고는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자살 또한 이러한 심리 기제 속에서 나타나는 행동 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행복과 통제감의 욕구가 현실에서 실현되기 힘들다고 여겨질 때 어떻게든 그것을 충족하고자 선택하는 방편인 셈이다.

[미래] “솔직히 이런 기분으로 (시험을) 잘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학교도 가기 싫고요… 저 한심하죠…?”

[재진] “자기 자신이요? 왜 그렇게 생각해요?”

[미래] “그냥… 솔직히 핑계니까… 내가 조금만 더 정신 차리면 되는 건데…”

[재진] “아직 16살이잖아요. 너무 어른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아요. 지금까지 혼자

서 열심히 공부했잖아요. 원망받을 사람은 따로 있지 않아요.”

[미래] 지 엄마 닳아서 벌써부터 나돌아 다닌다고? 그래서 교육을 시켜줘야 한다고? 어차피 눈에 띄면 때릴 거였으면서 왜 그런 이유를 붙이지? 행복을 기대하거나 경계했던 일련의 행동들 자체가 큰 착각이었다. 삶의 의지를 쥐고 있는 건 내가 아닌데.

미성년자로서 미래에게 한 집에 같이 살고 있는 부친을 피할 방법이란 없다. 당연하다는 듯이 휘둘러지는 반복적인 폭력에서도 벗어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절망하고, 감정을 죽이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사는 것뿐이다. 설령 반복적인 폭력에 무력해 보일지라도 이는 미래의 입장에서 인생에 대한 통제감을 확보하는 유일한 길이었던 것이다.

E. 회피

청소년 자살과 비관여자의 태도는 모두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도망칠 수 없는 폭력적 상황은 누구에게나 절망감을 선사하며 인생에 대한 통제감을 상실하도록 한다. 그때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오로지 자기 자신에 대한 것뿐이다. 웹툰 ‘여중생A’에서 재진과 재희 남매에게 어렵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은 미래의 말에서 이러한 상황 속 청소년의 심리를 엿볼 수 있다.

[미래] “난… 화를 내는 대신 그냥 자책을 했던 것 같아. 그냥 내가 다 잘못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그게 편하니까… 난 비겁하니까…”

부모의 이혼 이후 가족 간의 단절과 방임을 겪고 학교에서조차 심한 폭력을 당해 병원에 입원한 재희 또한 모든 폭력적 상황을 계속 자신의 탓으로 돌리려는 태도를 보인다. 자신이 다른 아이들 앞에서 했던 말, 취했던 행동을 일일이 되짚어 보며 자책하다 끝내는 자신의 존재까지 부정하고 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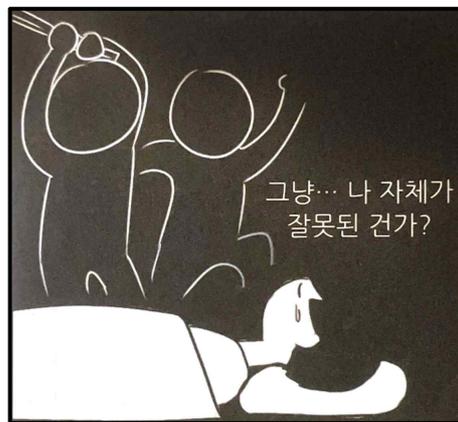


그림 13. 자살 생각 청소년의 회피(현재희)

[재희] 그냥... 나 자체가 잘못된 건가?

지금 당장 타인의 말과 행동, 생각을 바꾸거나 상황을 타파하기는 어렵지만, 자기 자신은 누구나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책을 하는 것은 폭력적

상황과 삶에 대한 통제력을 자신에게로 끌어오기 위한 노력인 셈이다. 그것이 설령 현실에 대한 회피로 나타난다고 해도 통제감은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미래가 스스로 삶의 마지막을 제한하며 기간을 정하는 모습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14. 자살 생각 청소년의 회피(장미래)

[미래] 나는 개학식 전날까지만 살아 있기로 했다.

이렇듯 자신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자책하다가 결국 자기 자신의 존재조차 부정하게 되는 것은 분명한 ‘자살 생각’이며, 이후 실제 자살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전조 현상이다. 타인과 상황에 대한 분노를 갖고 있는 사람도 그 기저에는 부정할 수 없는 자책감을 갖고 있다. 분노이든 자책이든 폭력에 동반되는 격렬한 감정은 자살 생각에 가까워질수록 점차 무뎈진다. 유규진(2020)은 자살 생각을 하는 사람들 중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경우에 오히려 격렬한 감정보

다는 차분한 태도를 보인다고 묘사한다. 그러한 태도로 자신이 죽을 날을 정하고 죽을 방법을 찾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예행연습까지 더해지면 자살의 충분 조건이 모두 갖춰진다. 웹툰 ‘여중생A’ 속 미래 또한 이와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래] 어느 날을 기점으로, 모든 일에 감각이 둔해지는 것 같다. 지금도 그렇고. 말해버려도 될 것만 같은 기분이 들어.

[재희] “저, 그럼 이제 게임은 다시 하는 거야?”

[미래] “음… 아니.”

[재희] “왜…?”

[미래] “그냥, 몰라. 재미가 없어졌나봐.”

[재희] “네가 별받은 거란 말, 화김에 한 말이었어. 전혀 말도 안 되는 건데…”

[미래] “별것도 아닌 걸로 왜 그래. 심각하게. 아, 그래. 아예 내 계정을 통째로 살래?”

[재희] “이것 봐! 뭔가, 어딘가로 떠나버릴 사람처럼 느껴진다구! 무섭단 말이야…”

[미래] “그런 거 느낀 적 있어? 내가 한창 게임에 빠져 살았을 때 말야… 현실과 맞지 않게 붕 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 게임 속에 살고 있다고 생각했으

니까. 그러다 보니까, 외부의 충격에 몇 배로 타격을 받는 거야. 나는 게임 속 인물이라고 생각해서 방심하고 있다가, 어차피 내가 살고 있는 곳은 여기라는 충격과 더불어서. 이거 다른 사람한테 말해본 건 처음인데 입으로 말하니까 더 사이코 같네. 취소야, 취소.”

예전에는 쉽게 하지 못했던 말을 하고, 비현실감을 느끼며, 평소 깊은 애정을 갖고 열심히 길드 활동을 하던 게임에조차 흥미를 잃어버린 미래의 모습은 많은 자살자들의 그것과 닮아있다. 또한 만취한 아버지가 집에서 술주정을 부릴 때마다 종종 그래왔던 듯이 아파트 옥상인 20층에 올라가 난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한숨을 연이어 내쉬는 모습은 자살자들의 여행연습 양상과 정확히 일치한다. 반드시 의도적으로 자살 여행연습을 거치지 않더라도 평상시 옥상에 자주 올라간다거나 약물 주입 경험이 있는 경우 여행연습 효과를 내기 때문에 자살에 더욱 근접해진다. 여기에 재회와 만날 때 소풍 가거나 놀이공원 가기, 노래방 가기 등 이전에 해보고 싶었으나 제대로 하기 힘들었던 일들을 써내려간 종이를 가지고 다니며 하나씩 도장 깨듯 경험하는 모습은 마치 죽기 전 버킷리스트를 이루어가는 사람을 떠올리게 한다. 이때 재회 또한 미래의 말과 행동에서 이상한 점을 느끼지만 설마하는 마음에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기보다는 상황을 부정하며 두려움이나 불안감만을 드러낸다.

자살을 생각하고 계획하며 실행하려는 사람들의 차분한 태도는 비관여자들의 모습과도 매우 유사하다. 비관여자들은 폭력의 희생자에게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못해 일견 무심해 보이는 태도를 보이는 게 아니다. Begue(2013)에 따르면 직접 폭력

을 당하지 않아도 그것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사람은 강한 고통을 느낄 수 있으며,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특정 행동을 취하게 된다. 재희는 또다시 성호가 승훈을 괴롭히려 불러내는 것을 목격하고 반사적으로 팔을 붙잡지만, 순식간에 자신에게 쏠리는 싸늘한 시선과 분위기에 압도되어 이내 멧쩍은 미소를 지으며 물러나고 만다.

[재희] “서, 성호야!”

[성호] “뭘.”

[재희] “어… 그제. 그제… 아무것도 아냐. 나 화장실 갔다 온다구. 이따 보자.”

미래 또한 같은 반에서 직접적인 폭력을 당하는 아이가 발생하고, 실제로 체육 시간에 피구를 빙자하여 머리와 발에 상습적으로 공을 던지는 상황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아이들의 위협적인 태도에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못하고 방관한다. 특히 방관자 효과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주변에 자신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여겨지면 이러한 경향은 더욱 심해진다. 그렇다고 미래가 아무런 고통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미래는 따돌림을 당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피해자의 심정을 이해하고 있다.

[미래]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 상황이 불편했을 것이다. 높게 들리는 웃음소리는 모두 박현진 친구들의 것이었으니까. 그러나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왜냐하면 아무도 나서지 않았으니까. 나부터도.

[미래] 이제 아이들은 공이 코앞까지 와도 그 공을 건드리지 않았다. 공은 이제 ‘다른 애들’은 건드릴 수 없는 시한폭탄이 되었다. 푸닥거리 한 번 하고 나면 다시 친해진다는 애들의 말과는 다르게, 박현진은 되레 반 아이들에게 공포했다. ‘우리가 김유리 괴롭히는 데 협조해.’라고. 하지만 어찌면 이게 더 자연스러운 일일지도 모른다. 처음 폭력이 시작된 이래로 약해지거나 멈추는 일은 없었으니까.

미래는 가정에서의 폭력에 노출된 사람으로서, 그리고 집단따돌림을 당해본 사람으로서 폭력에 대해 매우 잘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고통 앞에서 더욱 어쩔 줄 몰라 하게 된다. 어떤 고통인지 알기에 그 고통이 자신에게로 오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러한 마음이 곧 회피이자 비관여적 태도로 나타난다. 미래의 모친이 미래에게 한 말을 통해 고통을 바라보는 비관여자의 마음을 여실히 느낄 수 있다.

[미래 母] “너희 아빠가 원래는 좋은 사람인데... 술을 먹어서 그러시는 거야. 이번 일은 실수야, 잊어.”

미래의 모친 또한 직접적인 가정폭력의 피해자이기도 하나, 이와 동시에 미래에게 벌어진 폭력을 막아주지 못하고 비관여적 태도로 일관한 사람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해서 미래의 모친이 미래에 대한 애정이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평생 모친이 자신에게 관심도 애정도 없다고 생각한 미래가 당황할 정도로 미래의 모친은

미래의 뛰어난 글 재능도 알고 있었고, 작가로 데뷔하게 되었을 때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 모습도 보인다. 미래가 첫 계약금으로 내복 선물을 하려 했을 때도 미래의 겨울옷을 먼저 챙기고 미래의 선물에 대해 매우 고마워하며 아낀다. 또한 미래가 공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이면 기뻐하고 엄마로서 해준 것도 없다면서 미안해하기도 한다. 반면 미래의 모친은 직접적인 폭력을 당한 미래에게 연락 한 번도 하지 않고 자신의 속마음을 제대로 표현한 적 없는 모습도 보여 준다. 남편에게 경제적 도움이나 정서적 지지는커녕 폭력을 당하면서도 부친 없이 모친과 자신, 이렇게 단둘이서만 살면 어떻겠냐는 미래의 물음에는 고개를 돌려버린다.

자살과 비관여적 태도의 심리 기제로 작동하는 회피는 이렇듯 거대한 고통의 감정과 이를 벗어나 탈출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일어난다. 외부의 시각으로 보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되더라도 그 상황 속에 놓인 사람은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 감정에 압도되어 인생을 바라보는 넓은 시야를 갖기 어렵다. 다음과 같은 미래의 말은 폭력적 상황 속 사람들의 심리를 잘 대변해 주고 있다.

[미래] 이렇게 한 발짝 떨어져 있으면 아무렇지도 않을 일들이, 학교라는 공간 안에서는 움짱달짝 못하게 나를 옥죄어든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자살과 폭력을 막기 위한 해결의 열쇠가 비관여자에게 있다고 해도, 그 상황에 몰입되어 있는 비관여자가 온전히 자신만의 힘으로 자살이나 폭력을 예방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게다가 비관여자는 청소년 자살에 대한 올바른

르지 않은 인식을 지닌 경우가 많아 청소년이 자살 징후를 보이더라도 죽음이나 자살에 대한 거부감으로 인해 그 주제를 회피하고 상황을 부정하려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 고도로 훈련된 자살 분야 전문 상담사가 개입하여 이러한 인식을 개선하고 비관여자가 행동하게 하여 자살과 폭력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상담사가 전문 역량을 갖추고 내담자에게 제대로 개입할 수 있는 근무 환경에 대한 사회적·정책적 기반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F. 자살에 대한 비관여적 태도의 상담학적 함의

1. 청소년 자살의 위험성

한국은 세계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국가이다. 심지어 10대 청소년의 사망 원인 대부분은 자살에서 나온다(통계청, 2021). 청소년 자살은 단순히 자존감이나 우울증 등 정신장애와 같이 내적인 요인으로 인해 이루어진다고 보기는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가정 및 학교에서의 관계적 요인에 의해 일어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가정과 학교 내 폭력이나 소외는 자살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좀 더 깊이 있게 접근해야 한다(김운삼, 2018). 더욱이 관계적 요인에서 일어나는 고통스러운 경험은 반복적이고 만성적으로 행해지는 경향이 있는 데다 성격과 정서조절기능에 대한 넓은 범위의 변화를 일으킨다. 그렇기 때문에 자아정체감 형성이 중요한 과제인 청소년기에 발생한 관계적 상처는 부정적인 자아관과 세계관을 구축하고 스스로의 삶에 대한 무가치함을 느끼게 할 수 있다(정지선, 2008).

게다가 청소년 자살은 발달단계의 특성 상 자살과 자해, 사춘기를 쉽게 혼동할 수 있어 주변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다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청소년이 설령 우울하다거나 힘들다는 말을 언급해도 사춘기라고 생각하여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든가, 누구나 그 나이대에는 그럴 수 있다는 말로 넘어가는 것이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이러한 무심한 태도는 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무도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게 하고, 이해받지 못한 고통의 감정을 홀로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다가 자해나 자살의 길로 들어서게 한다(유규진, 2021). 특히 청소년 자살의 경우 성인에 비해 충동성과 보복성이 강해 순식간에 자살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청소년 자살은 보다 많은 관심과 빠른 개입이 필요하다(이광자, 2012).

2. 자살의 관계적 요인: 비관여자

본 연구의 대상은 웹툰 ‘여중생A’에서 보여지는 자살 생각 청소년과 비관여자(non-actor)이다. 여기서 비관여자는 청소년 자살의 중요 요인인 가정 및 학교에서의 폭력적 상황을 인지하고도 이를 막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은 사람들 전체를 통칭한다. 이때 자살 생각 청소년 본인 또한 자신을 위협한 상황에 일부러 노출시키거나 거기서 벗어나려는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음으로써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 자신에 대한 비관여자’라고도 할 수 있다. 특히 자살을 결심한 청소년 대부분은 공통적으로 차분하고 정적인 태도를 보이는데(유규진, 2020), 이는 자신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타인의 입장에서 서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상담학적으로 비관여자가 중요한 이유는 본질적으로 자살은 관계적 요인에서 발생하고, 설령 유서나 자살 이전의 삶에서 드러난 문제들이 경제적 문제, 학업 스트레스, 우울증 등 대인관계와는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는 것들이라 할지라도 그 밑바탕에는 고독과 소외 같은 관계적 요인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경제적 문제 자체가 아니라 돈이 없어서 겪는 모욕과 하찮은 취급이 문제이고, 학업 스트레스 자체가 아닌 성적이 나쁠 때 부모에게서 사랑 받지 못할 거라는 불안감이 진짜 원인이며, 우울증은 슬픔과 분노의 감정이 제대로 해소되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마음의 병인데 슬픔과 분노는 다시 관계적 욕구의 좌절과 깊은 관련이 있다(김태형, 2017).

세계적인 자살학자이자 임상심리학자인 Joiner(2005)가 제시한 실제 자살로 이어지는 조건들 또한 관계적 요인에서 비롯된다. 이때 Joiner가 언급한 자살이 이루어지는 조건은 모두 3가지인데, 이 중 자살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기 위한 능력인 ‘자살 잠재력’, 즉 자살 예행 연습을 제외하면 나머지 조건들은 모두 자살을 결심하게 되는 심리적 요인으로서 대인관계와 깊은 관련이 있다. 구체적으로 ‘좌절된 소속감’은 타인과의 진실한 상호작용과 애정 어린 관심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충족되지 못한 것이며, ‘인식된 부담감’은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된다는 느낌으로 자기효능감을 잃어버린 것이다. 스스로가 짐스럽다는 생각은 부정적 자아상과 삶에 대한 통제감 상실로 이어지고 끝내는 자신이 죽는 것이 생존보다 다른 이들에게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조건은 반드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만약 소속감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면 설령 인식된 부담감 수준이 높거나 자살 잠재력을 획득했다 하더라도 자살로 이어지지 않는다(하정미 외,

2010).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 자살에서 비관여자의 존재는 매우 중요하며, 상담사의 외부적 개입 및 처치를 통해 비관여자들이 행동하여 청소년의 곁에서 진정한 유대 관계를 형성한다면 비로소 비관여자가 게이트키퍼(gatekeeper)가 되어 자살을 예방할 수 있다. 자살 분야의 게이트키퍼는 영어로 문지기를 의미하는데, 누군가 자살을 생각하고 결심할 때 그 징후와 위험 신호를 재빠르게 인식하여 전문가에게 연계하거나 직접 개입하여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등 적절한 행동을 취함으로써 자살을 사전에 막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자살 분야의 게이트키퍼는 특정 직업군을 뜻하는 게 아니라 자살 징후를 인지할 수 있는 사람이면 가족, 친구, 교사, 이웃, 경찰, 의료 전문가 등 주변의 그 누구든 해당할 수 있다(서종한, 2018).

웹툰 ‘여중생A’에서 미래와 재희 또한 자살을 결심하기까지 수많은 비관여자들이 존재했다. 미래의 경우, 만약 가정에서 모친이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거나 교사와 사회복지사, 경찰 등이 가정폭력과 학교폭력, 집단따돌림을 빠르게 알아차리고 법적·복지적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면 자살에 대한 비관여적 태도의 과정들을 밟지 않았을 수 있다. 더불어 재희도 누나 재진이 곁에서 함께하며 부모의 방임과 학교에서 재희가 처한 상황을 하루 빨리 인지할 수 있었다면 심각한 학교폭력과 자살 생각은 보다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3. 청소년 자살에 관한 상담학적 개입

첫째, 비관여자의 행동 실행에 대한 동기 부여 및 강화가 필요하다. 외로움은 청

소년 자살 생각에 있어 핵심적인 예측 변인이기 때문에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유대감과 소속감을 증진시켜야 한다(정지선, 2021). 이는 주변의 비관여자들이 청소년과 진정한 애착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로 제시된 자살의 비관여적 태도의 다섯 과정에서 청소년이 자살을 생각하고 결심하며 계획하는 과정 중 그 어느 곳이라도 상관없이 언제라도 유대 관계가 제대로 생긴다면 자살을 예방할 수 있다. 하지만 웹툰 ‘여중생A’의 미래와 재회의 주변 사람들처럼 일이 바쁘거나 관성적으로 일상을 살아가며 비관여적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상담사가 비관여자에게 직접 개입하여 행동을 실행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강화해야 한다.

둘째, 자살을 결심한 청소년과 비관여자 모두를 위한 인간 중심 태도가 선행되어야 한다. 자전적 내러티브를 통해 자살유가족으로서의 경험을 탐구한 운영미와 차명호(2018)의 연구에서 자살유가족은 고위험 자살군으로 분류되어 위중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시스템에 놓여 있으나 이러한 체계나 환자로서의 신분은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하면서 인간 중심 상담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는 타인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은 마음에 자살을 결심하는 청소년이나 비난과 낙인에 둘러싸일 수 있는 비관여자에게도 모두 해당되는 것으로 이들을 문제적 시각으로 판단하거나 진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봐줄 수 있는 상담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셋째, 비관여자가 갖고 있는 자살에 대한 올바르지 않은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 특히 청소년 자살의 경우 발달 단계의 특성 상 자살 징후가 나타나더라도 사춘기로 오해하여 주변에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비관여적 태도를 보일 수 있다(유규진, 2021). 따라서 웹툰 ‘여중생A’에서 나타난 부모, 형제, 친구, 교사, 사회복지사,

경찰 등 청소년 주변의 모든 비관여자에 대한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자살 위험 징후를 인식하게 하고 적절한 개입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절차를 제시해야 한다. 더불어 자살의 중요한 요인인 가정 및 학교에서의 폭력에 대한 예방교육 또한 함께 실시함으로써 청소년이 자살로 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조금이라도 차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V. 결론

A. 요약

본 연구에서는 자살 생각 청소년과 주변의 비관여자들이 보이는 자살에 대한 비관여적 태도를 본질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이에 웹툰 ‘여중생 A’를 연구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이 자살에 가까워지는 상황적 맥락을 문헌해석학적 방법으로 분석 및 해석하였다. 청소년 자살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은 가정과 학교이며, 여기서 발생하는 폭력은 청소년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동시에 자살의 근본적 원인은 관계의 부재이기 때문에 폭력적 상황 속에서 비관여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여기서 언급되는 비관여자의 개념은 자살 생각자 또한 스스로를 구할 수도, 현재 상황을 외면할 수도 있다는 의미에서 청소년 본인을 포함한다. 본 연구에 나타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웹툰 ‘여중생A’에서 보여지는 가정에서의 신체적·정서적·언어적 폭력을 분석한 결과, 이러한 폭력은 청소년에게 마음 편히 지낼 시간과 공간을 모두 빼앗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에서 부친이 모친에게 행하는 가정폭력을 목격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 또한 직접적인 폭력을 당한 미래의 경우, 술에 취한 부친이 집에서 행패를 부릴 때 폭력을 피해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가 바람을 쐬거나 아파트 복도에서 숨듯이 웅크리고 앉아 교과서를 보는 등 집 밖을 배회하는 행동을 보인다. 이는 심각한 소외감과 절망을 느끼게 하는 동시에 자살 예행연습의 효과도 발휘할 수

있다. 자살 예행연습의 경우 자살이 실제로 행해지기 전에 꼭 필요한 선행조건이지만, 그렇다고 반드시 의식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만은 아니다. 평상시 답답한 마음에 높은 곳에 자주 올라간다거나 약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자살 예행연습의 효과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자살 생각 이후 예행연습 과정을 건너뛰고 곧바로 실제 자살 시도로 이어질 수 있어 더욱 위험하다.

둘째, 웹툰 ‘여중생A’에서 보여지는 가정에서의 방임을 분석한 결과, 이는 청소년에게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갖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친의 외도 이후 부모가 이혼하면서 누나는 독립하고 자신 혼자 집에 남겨진 재희는 또다시 누군가 자신을 떠날까봐 두려워한다. 경제적 지원은 충분했지만, 정서적 지원은 전무한 재희의 상황은 자살이라는 선택지에서 재정 상태는 궁극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보여준다. 가족이 모두 떠나 방임된 상태는 자신이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가져오고, 곧 더 이상은 버림 받기 싫다는 생각으로 이어진다. 그러한 연유로 재희는 자신의 욕구나 의견보다는 타인을 우선시하며 무엇이든 타인에게 맞춘다. 그 점이 다른 몇몇의 아이들에게 만만히 여겨져 학교 폭력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버림받는다라는 느낌은 미래 또한 마찬가지이다. 직접적인 폭력 이후 부모가 집을 나가 누구도 며칠 동안 연락 없이 혼자 남겨지는 상황 속에서 폭력을 휘두르는 부친뿐만 아니라 모친도 실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이후 모친의 따스한 애정을 받더라도 결코 이를 믿지 못한다.

셋째, 웹툰 ‘여중생A’에서 보여지는 학교에서의 집단따돌림을 분석한 결과, 이는 청소년이 자신에 대해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존재라는 무가치함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에 와도 인사를 하거나 말을 나눌 사람이 없고, 밥을

함께 먹을 사람도 없다. 생일이어도 축하 한 마디 건네줄 친구도 없는 미래는 점차 소외감을 넘어서 유명이나 투명인간처럼 자신이 타인에게 그 어떤 영향도 줄 수 없다는 생각을 한다. 이후 태양과 백합이 자신에게 다가와도 스스로를 급 낮은 사람, 무가치한 사람으로 여기기 때문에 친해질 수 없다고 여기며 먼저 피한다. 특히 자신에게 친밀하게 대해주는 아이와 함께 있는 모습을 타인에게 들키면 그 아이의 급 또한 자신처럼 끌려 내려진다고 여기며 피하는 모습은 이러한 자신에 대한 무가치함을 더욱 잘 보여준다.

넷째, 웹툰 '여중생A'에서 보여지는 학교에서의 신체적·정서적·언어적 폭력을 분석한 결과, 이는 청소년으로 하여금 저항 의지를 상실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과 학교에서의 폭력이 차이가 있다면 타인에 의해서, 그것도 다수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세와 분위기로 인해 폭력적 상황에 저항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심지어는 자신이 옳은 것이라도 다른 사람들 여러 명이 틀렸다고 하면 자신의 의견에 확신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워 하다 끝내는 틀린 것으로 받아들여듯이 모든 것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게 된다. 그래서 자신이 잘못했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의 의견에 끌려 다니며 오롯이 맞춰주려 하게 되고 이러한 행동은 다른 아이들로 하여금 만만하게 보도록 해 다시 폭력의 희생자가 되도록 하는 악순환을 형성한다.

다섯째, 웹툰 '여중생A'에서 보여지는 가정 폭력에서 비관여자의 태도를 분석한 결과, 비관여자는 폭력적 상황을 보고만 있어야 하는 스스로에 대한 혐오와 죄책감으로 괴로워하며 이러한 상황을 부인하고 외면하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언급되는 비관여자는 자살 생각 청소년을 포함한다. 청소년은 다른 가족 구성원

에게 일어나는 가정폭력의 목격자인 동시에 자기 자신에 대한 비관여자이다. 미래는 부친이 모친에게 휘두르는 폭력을 고스란히 목격하고 그 상황에서 무엇도 할 수 없는 자신을 ‘쓰레기’로 표현하며 자책감과 자기혐오감으로 괴로워한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할 것은 반대로 미래의 모친 또한 미래에게로 향하는 남편의 폭력을 목격한 비관여자라는 점이다. 모친은 폭력 이후 때로는 미래에게 부친이 술을 먹어 잠시 그러는 것일 뿐 원래 나쁜 사람은 아니라는 변명을 하기도 하고, 어느 날은 아예 집 밖을 나가 며칠 동안 연락 두절 상태로 미래를 방치하기도 한다. 이는 모두 자신의 딸에게 향한 남편의 폭력을 부인하고 외면하려는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여섯째, 웹툰 ‘여중생A’에서 보여지는 학교 폭력에서 비관여자의 태도를 분석한 결과, 비관여자는 아무도 나서지 않기 때문에 집단이라는 이름하에 폭력을 묵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폭력의 특징은 절대 다수가 한 두 명의 극소수에게 폭력을 행사한다는 점이다. 비관여자 또한 집단 혹은 대중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여러 명으로 사적 공간에서 일어나는 가정 폭력과는 분명히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비관여자의 역할이 매우 크고 도움의 손길을 선뜻 내밀기도 어렵다. 폭력을 행사하는 분위기에서 아무도 나서지 않는데 혼자 누군가를 돕는 것은 외면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다. 게다가 폭력의 특성상 자신이 나섰을 때 그 폭력이 스스로에게로 향해질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통을 심하게 느낄수록 폭력을 회피하게 된다.

일곱째, 웹툰 ‘여중생A’에서 나타나는 폭력과 비관여적 태도가 어떻게 청소년을 자살 생각으로 이끄는지 분석한 결과, 폭력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청소년의 자살 생각에 있어서 비관여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각한 소외

감과 무력감, 그리고 자살 예행연습은 청소년으로 하여금 자살 생각, 더 나아가서는 실제 자살 시도로 발을 내딛게 만든다. 이때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만이라도 해결된다면 자살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비관여자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거나 정서적 지지를 제공한다면 자살이라는 현상은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비관여자가 폭력을 외면할 때, 폭력의 피해자는 폭력보다 더한 소외감과 희망과 기대가 무너져 절망에 이른 무력감을 느낄 수 있다. 차라리 다정하지나 말 것이지, 라는 미래의 말처럼 때로는 비관여적 태도가 폭력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것이다.

B. 논의

한국의 경우 출산율은 세계 최하위인 국가지만, 자살률은 세계 최상위인 국가이다. 특히 10대부터 20대, 30대까지 젊은 층에서 사망하는 원인 1위가 자살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듯 성인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하는 청소년기부터 이제 막 성인이 되어 학업을 마치고 사회생활을 시작해 적응하는 초기 성인기까지의 자살률이 유난히 높다는 것은 한국 사회가 어딘가 잘못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더욱이 청소년기는 2차 성장과 함께 세계관 및 자아정체감, 독립심, 자기조절기능 등이 발달하는 시기로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거의 성인기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어린 아이일 때보다 복잡해진다.

하지만 동시에 청소년은 미성년자로서 여전히 부모나 학교의 영향 아래 있다. 그

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폭력은 청소년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수밖에 없다. 게다가 주변에 존재하지만 자신에게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제대로 된 정서적 유대도 되어주지 못하는 수많은 비관여자들은 더욱 청소년을 고통스럽게 만든다. 이러한 소외감과 무력감에 더해 자살에 대한 예행연습이 이루어질 때 자살이라는 현상이 일어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바로 이러한 청소년의 자살 생각과 주변의 비관여자들을 본질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 문제와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웹툰 '여중생A'에서 보여지는 가정에서의 폭력과 방임은 청소년으로부터 마음 편히 지낼 시간과 공간을 모두 빼앗고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갖게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실제 자살자들이 이 세상에 자신이 있을 곳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Joiner(2005)의 연구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 이에 더해 버림받는다라는 느낌은 자신의 존재 자체가 타인에게는 짐이 될 수 있다는 생각과 매우 유사하다. 특히 가정은 아직 혼자서 오롯이 독립할 수 없는 청소년이 연관을 맺을 수밖에 없는 의지처이며, 가장 사적인 공간이자 타인이 아닌 가족으로 묶인 관계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발생한 모든 경험은 청소년의 자아정체감과 세계관을 형성하는 중요한 밑바탕이 됨을 알 수 있다.

둘째, 웹툰 '여중생A'에서 보여지는 학교에서의 집단따돌림과 폭력은 청소년으로 하여금 스스로에 대해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존재라는 무가치함을 느끼게 하고 폭력에 대한 저항 의지를 상실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기제는 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자기 비하적 사고와 학교 폭력에 대해 신고보다는 체념하는 태도를 설명해준다. 더욱이 집단따돌림과 직접적인 폭력을 당하는 자신과 다른 아

이들, 그 중에서도 소위 말하는 ‘인싸’와 비교하면서 자신을 낮추고 상황을 체념하려는 경향은 한층 더 심해질 수 있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이보경(2018)이 실제 교사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교폭력에 대해 로마 제국의 호모 사케르(Homo Sacer)와 중세시대의 마녀 사냥에 비유하여 어떻게 피해자와 가해자, 방관자의 관계가 형성되는지 설명한 것과 놀랍도록 유사하다. 범 바깥으로 추방된 이를 의미하는 호모 사케르와 뛰어난 학자였던 마녀 모두 억울하게 피해를 입어도 누군가에게 제대로 죄를 물을 수 없었던 위치라는 점에서, 그렇기 때문에 모든 폭력의 책임과 원인이 피해자에게 전가된다는 점에서 학교폭력의 희생자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 부모나 교사 등 주변에 어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이 도움 한 번 제대로 요청하지 못하고, 선불리 폭력적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시도조차 못하는 이유는 폭력 속에서 이미 심리적 에너지가 고갈되고 피폐해져 시야가 매우 좁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라는 좁은 공간 속에서 피해자나 가해자, 비관여자 누구 하나 가릴 것 없이 또래 관계에 대한 불안을 한없이 느끼며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검열하고, 상대의 무시나 냉담한 태도가 그 사람의 문제라고 이성적으로 분석하고 생각하기보다는 집단따돌림과 폭력에 대한 두려움으로 다른 아이들의 눈치를 보며 거기에 자신을 맞추게 되는 것이다.

셋째, 웹툰 ‘여중생A’에서 보여지는 가정 폭력 속 비관여자는 폭력적 상황을 보고만 있어야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감과 죄책감으로 괴로워하며, 이러한 상황들을 부인하고 회피하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고통에 대한 감정이입이나 고통이 상황을 해결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으며,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Bloom(2016)의 주장과 일치한다. 자살 생각 청소년 본인을 포함한 비관여자

는 결코 폭력이나 고통에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하는 공감결여자가 아니다. 다만 너무 고통스러운데 반해 이것을 벗어날 방법은 요원하기 때문에 이를 인지적으로 이겨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웹툰 ‘여중생A’에서 가해자인 부친의 폭력에 대해 미래의 모친이 오히려 피해자인 미래에게 변명하고 합리화시키는 것과도 같은 이치다. 하지만 분명히 비관여적 태도와 목인은 절대 해결방안이 될 수 없으며, 되레 폭력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비관여자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상황에 개입해 피해자를 도울 수 있도록 적절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이 반드시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넷째, 웹툰 ‘여중생A’에서 보여지는 학교 폭력 속 비관여자는 아무도 먼저 나서지 않기 때문에 집단이라는 이름하에 폭력을 묵인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아무리 사회적으로 똑똑하고 성실한 사람이라고 해도 주변에 다른 사람이 여러 명 있을 경우에는 선뜻 도움의 손길을 내밀거나 위험 상황에 대해 알아보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이 도와줄 것이다’라는 어리석은 믿음으로 정작 자신은 무신경한 태도를 보인다는 Sanderson(2020)의 방관자 효과에 대한 설명과도 유사하다. 설령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자 하더라도 자신이 대신 그 폭력의 희생자가 될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나 집단적인 분위기를 따르지 않고 행동할 때의 압박감은 더욱 청소년을 비관여자로 남게 만든다. 따라서 학교 장면에서 폭력적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이성적인 절차와 시스템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이 절실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섯째, 가정과 학교에서의 폭력과 비관여적 태도가 어떻게 청소년을 자살 생각으로 이끄는지 분석했을 때 폭력적 상황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상황을 비관여자가

목인함으로써 청소년의 소외감과 무력감을 극대화시켜 자살 생각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모든 자살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사랑과 관심의 부족이며, 특히 청소년 자살자의 경우 반드시 가족들의 비협조와 무관심이 관련되어 있다는 유규진(2020)의 설명과도 정확히 일치한다. 여기에 자살 예방연습이 더해지면 자살이 실제로 시행되는 것이다. 더군다나 자살 생각을 가진 청소년 본인 또한 자살에 가까워질수록 감정이 무뎠어지고 차분한 태도를 보이며 자신의 상황에 대한 비관적 태도를 보인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청소년 본인을 포함한 비관여자의 역할은 자살에 있어 생사를 가를 수 있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웹툰 ‘여중생A’ 속 자살 생각을 가진 청소년과 주변의 비관여자라는 두 가지 시각으로 자살에 대한 비관적 태도를 해석하였다. 연구 결과, 자살과 폭력에 대한 비관적 태도 모두 고통의 감정을 느끼고 그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강한 욕구로 인해 발생하기 때문에 특별한 도움 없이 청소년이나 비관여자 개인의 힘만으로는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게다가 청소년과 그 가족은 자살과 폭력에 대해 갖는 수치감이나 병적인 시각으로 인해 상황을 숨기려 하는 경향이 있다. 가족을 포함한 주변의 모든 비관여자들이 지닌 죽음에 대한 두려움 및 거부감은 자살 생각 청소년에게 애정 어린 관심과 도움의 손길을 뻗는 것조차 방해한다. 따라서 고도로 훈련된 자살 분야 전문 상담사가 인간 중심 상담을 통해 청소년과 비관여자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자살에 대한 올바르지 않은 인식을 변화시킨 후 비관자에게 행동 실행에 대한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자살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자살 생각 청소년과 주변의 비관여자들을 연구하여 향후 자살

분야의 게이트키퍼 양성을 위한 기초 자료를 갖추고 전문 상담사의 외부적 개입 및 처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러한 논의가 실제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정책적 뒷받침과 더불어 자살 분야 전문 상담사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회적·개인적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될 것이다.

C. 제언

본 연구의 한계점을 기반으로 후속 연구에 대해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웹툰이라는 콘텐츠를 활용하여 자살 생각 청소년과 주변 사람들의 비관여적 태도를 분석하였다. 웹툰은 청소년의 대표적인 문화 콘텐츠이며, 특히 본 연구에서 사용된 웹툰 ‘여중생A’의 경우 청소년 독자층의 높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제 청소년들의 실상을 매우 잘 표현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하지만 그림에도 불구하고 이는 가상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보완하여 자살 생각을 갖고 있는 실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본 연구결과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문헌해석학적 연구로서 필연적으로 연구자의 주관적 해석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살 생각 청소년이나 주변 사람들의 비관여적 태도에 대한 복잡한 심리 기제를 보다 잘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후속 연구에서는 자살과 비관여적 태도의 심리에 관한 수량적 연구가 불가피하다고 보여진다.

셋째, 본 연구는 실제 자살을 시도한 것이 아닌 ‘자살 생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자살 생각은 자살 시도의 중요한 예측 지표이나, 직접적인 자살 시도 경험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자살 생각을 하는 청소년과 주변의 비관여자 모두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의 감정에서 벗어나고자 자살과 비관여적 태도에 이르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힘만으로는 이러한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게다가 세간에 알려진 것과 달리 자살에 대한 비관여적 태도는 유난히 감정이 결여되어 있거나 이기적인 사람에게서 보이는 심리 기제나 행동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과 비관여자들을 선불리 비난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봐줄 수 있는 인간 중심 상담이 진행되어야 한다.

다섯째, 자살 생각 청소년과 비관여자 모두 죽음에 대한 거부감이나 두려움, 자살과 폭력에 대한 수치심이나 병적인 시각 등 올바르지 않은 인식을 지닌 경우가 많다. 따라서 고도로 훈련된 자살 분야 전문 상담사가 개입하여 이러한 인식을 개선하고 자살에 대해 진정으로 이해하도록 도울 필요성이 대두된다. 향후 자살 분야의 게이트키퍼 양성 프로그램 또한 마찬가지로 이러한 점들이 고려되어 제작 및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자살 분야 전문 상담사가 자살 생각을 지닌 청소년과 비관여자에게 제대로 개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문 역량을 갖추고 제대로 근무할 수 있는 사회적·정책적 기반이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 자살 예방 센터는 임금 부족과 과도한 업무 부담감 등으로 인해 상담사가 여실히 부족한 실정이다. 게다가 자살이라는 현상에 개입해야 하는 상담사 또한 자살자 못지않게 심리적 외상을 경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에 대한 대비는 거의 되어 있지 않다. 이와 같은 환경은 다시 상담사의 잦은 이직과 전문성 손상으로 이어져 악순환을 형성한다. 따라서 자살 분야 전문 상담사가 제대로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근무 환경에 대한 기반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자살 생각 청소년과 주변의 비관여자라는 두 입장에서 청소년 자살에 대한 비관여적 태도를 연구하여 향후 자살 분야의 게이트키퍼 양성을 위한 기초 자료와 전문 상담사의 외부적 개입 및 처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청소년 자살 문제와 웹툰을 결합하여 관련 분야 연구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공하기도 했다. 이렇듯 본 연구를 통해 자살에 대한 비관여적 태도의 상황적 맥락을 문제시하기에 앞서 이해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자살 예방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명주, 이찬욱 (2018). 무속 신화의 현대적 수용과 재구: 웹툰 묘진전의 사례를 중심으로. *어문론집*, 73, 61-85.
- 경기복지재단 (2013). 장애노인 복지 프로그램 참여자 삶의 변화 연구: 객관적 해석학 방법을 활용하여. 수원: 경기복지재단.
- 고기숙, 이지숙, 박창훈 (2017). 청소년 자살예방을 위한 게이트키퍼 교육 콘텐츠 연구. *한국융합학회논문지*, 8(6), 181-197.
- 고정애 (2022). 사회복지 전공 학생의 게이트키퍼로서의 준비성: 사회복지 교육과 자살예방 역량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교육*, 57, 29-60.
- 고진호 (1997). 교육해석학적 패러다임과 그 적용가능성 연구. *교육철학*, 17, 49-68.
- 교육부 (2021). 2021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세종: 교육부.
- 구자준 (2018). 변화하는 남성성과 젠더 수행: 웹툰 ‘치즈 인 더 트랩’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65, 317-344.
- 구자준 (2019). 변화하는 일상툰의 비판적 가족 재현: 웹툰 ‘단지’와 ‘며느라기’를 중심으로. *한국극예술연구*, 65, 71-98.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2017). 도서관 이야기: 어린이와 청소년의 미래를 열어 가는. 서울: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 권미영, 박보영 (2013). 푸코(Michel Foucault)의 권력이론으로 본 사회복지 클라이언트의 주체화 문제: 영화 ‘완득이’에 대한 비판사회복지학적 접근. *한국융합인문학*, 1(1), 27-50.
- 권영 (2019). 아동·청소년의 우울증과 대인관계: D. W. Winnicott의 대상관계 이론 중심으로 영화 ‘다우더’ 분석. *상담심리교육복지*, 6(2), 7-33.
- 김건찬 (2012). 학교폭력 실태와 예방: 나 때리지 마! 너 지켜줄게! 우리 모두는 소중한잖아! 서울: 한국법제연구원.
- 김경수 (2020).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청소년을 위한 실감콘텐츠 ‘확장현실 심리치료(XR Therapy)’ 활용 연구: ‘겨울왕국(Frozen)’ 캐릭터 엘사 중심으로. *애니메이션연구*, 16(4), 39-58.

- 김경수 (2021). 범죄 예방을 위한 메타버스 심리치료 활용 모델 연구: 영화 ‘조커 (Joker)’ 속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는 등장인물 중심으로. 애니메이션연구, 17(3), 55-79.
- 김경애 (2019). 한국 웹툰 스토리의 특성과 문제점: 제재를 중심으로. 인문사회21, 10(1), 101-116.
- 김경희, 김혜미 (2019). 자살자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 변화 사례 연구: 소설 ‘우아한 거짓말’을 활용한 문학치료 프로그램의 설계와 실행. 문학치료연구, 52, 37-84.
- 김기현, 김용희, 김경희 (2018). 아동학대와 가정폭력의 중복발생 연구: 아동보호 서비스의 관점. 사회복지연구, 49(4), 221-249.
- 김나예 (2015). 가정폭력을 경험한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또래애착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2(2), 1-19.
- 김다솔 (2019). 웹툰 내러티브와 영화 내러티브 비교 연구: ‘신과 함께’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경 (2020). ‘괜찮아 사랑이야’를 통해 본 조현병에 대한 인식과 회복의 내러티브 탐구. 사회과학연구, 36(2), 145-168.
- 김상운 (2012). 가정폭력특례법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경찰 단계에서의 가정폭력 대응방안 모색을 중심으로. 한국경찰학회보, 14(3), 3-24.
- 김성진 (2013). 학교 폭력에 대한 청소년 소설의 서사화 양상. 문학치료연구, 26, 333-354.
- 김아리 (2018). 청소년 자살예방 프로그램에 관한 통합적 문헌고찰: 국내문헌을 중심으로. 한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아영, 차정은, 이채희, 주지은, 임은영 (2016). 혼자 쓰는 연구 논문: 연구방법론. 서울: 학지사.
- 김영숙 (2017). 웹툰 ‘은밀하게 위대하게’의 스토리텔링에 나타난 일상성. 애니메이션 연구, 13(3), 27-61.
- 김영천, 이현철 (2017). 질적연구: 열다섯 가지 접근. 서울: 아카데미프레스.
- 김운삼 (2018). 청소년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 산업진흥연구, 3(2), 63-78.
- 김윤지 (2020). ‘거짓 자기’로 본 청소년 우울증과 자살 연구. 호남신학대학교 기독교상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주 (2013). 학교상담사와 학교사회복지사의 역할 정립에 관한 연구. 가천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은, 서진환 (2015). 영화 속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표상 연구: 한국 영화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6(2), 177-204.
- 김종환, 박용범, 손진웅 (2020). 스포츠 관여자의 라이프스타일 및 광고수용 비교 분석: 공공데이터를 중심으로. 한국체육과학회지, 29(5), 475-491.
- 김초롱 (2008). 한국 영화를 통하여 살펴 본 보웬의 가족 치료적 접근과 가족 개념의 변화: '축제', '바람난 가족', '가족의 탄생'을 중심으로.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기독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춘경 (2002). 이혼가정 아동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독서치료에 관한 이론적 고찰. 초등교육연구, 15(2), 47-64.
- 김태형 (2017). 자살공화국: 한국인은 왜 자살하는가? 서울: 세창출판사(세창미디어).
- 김혁, 김학경 (2018). 가정폭력·아동학대에 대한 경찰개입의 한계요인과 개선방안. 경찰학연구, 18(1), 9-35.
- 김현수, 이현정, 장숙량, 이기연, 주지영, 박건우 (2022). 가장 외로운 선택: 청년 자살, 무엇이 그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는가. 서울: 북하우스.
- 김혜경 (2020). 청소년의 정서적 외상이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고통감내력과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매개된 조절효과. 경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순현 (2008). 청소년 모방 자살사고의 심리적 기제에 관한 탐색. 인문사회과학연구, 19, 51-87.
- 노원석 (2012). 자살의 상담학적 이해. 성경과 상담, 11, 9-44.
- 류채연, 최운실 (2019). 영화 '버킷리스트'에 나타난 노년기의 성찰과 학습 사례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18), 707-729.
- 명화숙 (2016). 한국 가정폭력 피해아동의 현황과 대책 방안. 2016 한국인간발달학회·한국아동심리치료학회 공동학술대회, 1-15.
- 박경미, 고재홍 (2013). 청소년의 가정폭력 경험과 외상 후 스트레스 간의 관계: 용서의 역할. 청소년상담연구, 21(1), 257-274.
- 박경희 (2016). 청소년소설에 나타난 청소년문화 양상 연구: 또래·여가 문화를 중심으로. 인문사회, 21, 7(5), 1143-1165.

- 박범기 (2016). 웹툰, 사회적인 것을 재현하는 대중매체? *문화과학*, 85, 320-331.
- 박석원, 서청희, 이성규, 전준희 (2020). 청소년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청소년복지연구*, 22(2), 115-137.
- 박선화 (2016). 영상콘텐츠화된 청소년소설에 나타난 결핍 양상 연구: 김려령의 '완득이'와 '우아한 거짓말'을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언주 (2013). 가정폭력노출 아동 어머니의 자녀양육 경험의 변화과정. *학교사회복지*, 26, 153-176.
- 박언주 (2001). 피학대 경험이 아동의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림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윤영 (2013). 사회복지사업법 개정과정 연구: 2012년 1월 26일 개정법을 중심으로. *비판사회정책*, 40, 74-117.
- 박정숙, 박재홍 (2020). 한국어판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행동 척도 타당화 연구. *신경정신의학*, 59(2), 170-174.
- 박종엽 (2019). 여가생활 경험에 관한 해석학적 연구: 청각장애인 청년을 중심으로. *관광레저연구*, 31(11), 435-454.
- 박주원, 김미숙, 이창문 (2019). 영화 '미쓰백'을 통해 본 아동학대 피해자의 내러티브 탐구: 자아 의미의 트랜스퍼스널적 접근. *사회복지연구*, 50(1), 235-261.
- 박지만 (2016). 외상경험과 학교적응간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역할: 서울시 사회복지기관 이용 청소년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복주 (2012). 장애인성폭력관련법 및 정책 변화와 비판적 검토: 영화 '도가니' 이후 무엇이 달라지고 있는가? *월간 복지동향*, 163, 8-12.
- 백종우, 조선진, 이수정, 웅진영, 박종익 (2014). 한국형 표준자살예방교육프로그램 '보고듣고말하기'가 게이트키퍼의 개입에 미치는 영향. *신경정신의학*, 53(6), 358-363.
- 보건복지부 (2019). 2018년 자살실태조사. 세종: 보건복지부.
- 비판사회학회 (2014). *사회학: 비판적 사회읽기*. 파주: 한울아카데미.
- 서보영 (2021). 웹툰 '그녀의 심청'의 고전소설 '심청전' 변용 양상과 고전 콘텐츠의 방향. *어문론총*, 88, 35-64.

- 서울신문 (2015. 11. 20). 이 사회의 축소판 ‘웹툰’.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51121012003>에서 2022년 4월 20일 인출.
- 서은영 (2020). 로맨스판타지 웹툰의 부상과 재현: #서로판, #영애물, #집착남물을 중심으로. *애니메이션 연구*, 16(3), 93-113.
- 서종한 (2015). *심리부검: 나는 자살한 것을 후회한다*. 서울: 학고재.
- 서종한 (2018). *심리부검: 사람은 왜 자살하는가*. 서울: 시간여행.
- 설연경 (2020). 웹툰(Webtoon)의 교육적 활용가능성에 대한 이론적, 실천적 근거 탐색.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6), 510-520.
- 성두현 (2014). 청소년 또래 괴롭힘, 우울감이 자살 생각에 미치는 영향 연구: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백석대학교 기독교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소현성 (2006). 주돈이 저작의 간행과 권위의 형성에 대한 문헌 해석학적 연구. *동양철학연구*, 46, 103-135.
- 손영수 (1998). 유아생활세계 연구를 위한 해석학적 탐구방법에 대한 고찰. *영유아교육연구*, 1, 139-165.
- 송다금 (2019). 웹툰 ‘미생(未生)’에 드러난 마르크스의 소외 개념. *인문사회21*, 10(4), 1715-1729.
- 송병국 (1999). 청소년학 연구방법론의 동향과 과제. *청소년학연구*, 6(1), 1-21.
- 송인한, 권세원, 박단비 (2012). 친구의 자살시도가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분석.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40(1), 352-376.
- 시사매거진 (2019. 8. 27). ‘여중생A’ 보는 이들 감정이입 시켜... 배우들의 색깔 있는 연기와 독특한 연출로 싱그럽게 표현. <http://www.sisamagaz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4011>에서 2022년 4월 13일 인출.
- 신성철 (2004). 영화 ‘Good Will Hunting’에 대한 선택이론적 관점에서의 대사 분석: 내·외 통제성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성은 (2021). 웹툰 ‘우리집에 곰이 이사 왔다’를 통해 본 상호성장의 과정: 상실 극복과 성장공간을 중심으로. *한국문화기술*, 30, 127-154.
- 안현의, 주혜선 (2011). 단순 및 복합 외상 유형에 따른 PTSD의 증상 구조.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0(3), 869-887.

- 양희정 (2019). 웹툰 아랍어 참여 번역 연구: ‘슈퍼 시크릿’을 중심으로. *아랍어와 아랍문학*, 23(2), 35-65.
- 엄효정 (2006). 일본 청소년 자살의 연구. 세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연합뉴스 (2013. 1. 8). 유명인 1명 자살, 평균 600명 ‘베르테르 효과’. <https://www.yna.co.kr/view/AKR20130108126100017>에서 2022년 2월 10일 인출.
- 오경옥, 강문희 (2017). 청소년의 자살예방을 위한 게이트키퍼 행동 영향요인. *한국융합학회논문지*, 8(11), 431-438.
- 오마이뉴스 (2009. 3. 16). 베르테르 효과, 연예인만 문제가 아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088558에서 2022년 2월 10일 인출.
- 오마이뉴스 (2010. 3. 2). 제발! 베르테르 효과 발생하지 않기를...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333412에서 2022년 2월 10일 인출.
- 오승재, 이영광, 지은구 (2019). 아동학대와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과학연구*, 38(1), 31-63.
- 위근우 (2015). 웹툰은 어떻게 10대의 목소리를 담게 되었나. *창비어린이*, 13(4), 42-48.
- 유강민, 손영수 (2009). 매체동화가 특수아동의 정서발달에 미치는 교육적 함의에 대한 해석학적 연구. *특수아동교육연구*, 11(4), 189-211.
- 유규진 (2020). 세상에서 가장 슬픈 청소년의 자살 실태 이야기. 서울: 북랩.
- 유규진 (2021). 죽고 싶은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서울: 북랩.
- 윤건수 (2013). 경험의 의미와 질적 연구의 연구 과정: 근거이론에 대한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7(2), 163-200.
- 윤광옥 (2015). 김려령 소설 연구: 공감과 소통을 통한 치유와 성장의 글쓰기. 대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명숙, 박아란 (2015). 청소년의 대인외상경험과 외상 후 성장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대처능력의 조절효과 검증. *청소년복지연구*, 17(3), 239-261.
- 윤영미, 차명호 (2018). 자살유가족의 자전적 내러티브를 통한 상담학적 함의와 과제. *상담학연구*, 19(4), 109-123.
- 윤일수 (2017). 영화 ‘도가니’를 통해 본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의 문제점과 개선

- 방안 모색. 지역과 문화, 4(1), 27-42.
- 음영철 (2016). 청소년소설에 나타난 소녀들의 자살 심리: 소녀들의 다양한 인간 관계의 불화에서 오는 충동적 특성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2), 686-695.
- 이경진 (2003). 청소년 자살의 고위험 집단과 저위험 집단의 심리적 특성. 가톨릭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광자 (2012). 청소년 자살의 원인과 대책: 우리 아이들은 왜 자살을 선택할까? 교육정책포럼, 228, 4-8.
- 이광현 (2004). 자살 환자의 치료. 생물치료정신의학, 10(1), 15-24.
- 이문희 (2020). 로맨스 웹툰 형식과 주인공의 인간원형변화 연구. 만화애니메이션 연구, 61, 217-253.
- 이보경 (2018). 트라이앵글의 심리: 피해자, 가해자, 방관자의 마음으로 읽는 학교 폭력. 서울: 양철북.
- 이상오 (2007). 교육사 연구에 있어서 해석학적 연구방법의 전망. 한국교육사학, 29(1), 121-153.
- 이수림 (2012). 외상 유형이 외상후성장 및 지혜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와 대처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9(3), 319-341.
- 이승주, 남재성 (2016). 아동학대 경험에 따른 자존감 저하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소년원생을 대상으로. 한국범죄심리연구, 12(3), 87-112.
- 이시형, 박상미 (2020).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죽음의 수용소에서' 빅터 프랭클과의 대화. 서울: 특별한서재.
- 이안나, 김미정 (2018). 학교폭력상담자의 대리외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개인특성, 직무특성,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청소년상담연구, 26(1), 87-103.
- 이영희 (2010). 대중영상매체가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숙 (2019). 부모의 알콜 남용으로 인한 가정폭력 피해 아동의 경험: 그림과 스토리텔링을 이용한 질적 연구. 한국범죄심리연구, 15(2), 97-112.
- 이정은 (2020). 자살 게이트키퍼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24), 785-803.

- 이정희, 박선영 (2012). 아동의 가정폭력경험 유형에 따른 교우 및 교사관계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28(2), 249-271.
- 이지연 (2004). 스트레스와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청소년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채영 (2018). 영화 ‘검은 사제들’과 ‘곡성’에 나타난 퇴마 소재 스토리텔링 기법과 악의 이미지 연구: 전통 무속 요소와 오컬트 장르 특질의 융합적 재현 양상 분석을 중심으로. *어문론집*, 74, 97-135.
- 이현주 (2020). 웹툰 번역의 현지화에 관한 연구: 중국 대륙과 대만의 중국어 번역을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24(3), 137-163.
- 이혜경 (2010). 교과목에서 영화의 활용: ‘식코’를 통한 의료보장제도의 필요성 이해. *한국사회복지교육*, 13, 79-98.
- 이혜경 (2010). 영화 ‘나의 결혼 원정기’를 통해 본 다문화가족 형성과 현실에 관한 연구. *복지와 문화다양성연구*, 4, 129-143.
- 일다 (2017. 9. 14). 2000년대 중반 ‘여중생’들의 서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07/0000005774>에서 2022년 4월 13일 인출.
- 임수진, 최희빈 (2021). 부모 방임과 학대가 청소년의 비자살적 자해에 미치는 영향: 적응적 정서조절 전략의 매개효과. *인문사회21*, 12(5), 1189-1200.
- 임영식 (2004). 청소년 자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과 평가 그리고 예방. *미래청소년학회지*, 1(1), 81-109.
- 장혜정, 장은정 (2008). 웹기반 소집단 협력학습에서 학습자 성격 특성과 상호작용자 유형에 따른 학습결과 분석. *교육공학연구*, 24(1), 137-167.
- 장희가 (2018). 김려령 청소년소설 연구.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형준 (2014). 자살에 대한 목회 상담학적 대책. *복음과 상담*, 22(2), 275-300.
- 정옥분 (2004). 발달심리학. 서울: 학지사.
- 정우광 (2013). 영화 ‘거리의 천사(馬路天使)’의 내러티브에 대한 연구. *중국학논총*, 42, 437-460.
- 정은의 (2008). 분석심리학의 그림자 상징과 처리태도의 변화 고찰: 전래동화, 액션, 공상과학(SF)영화를 통한 비교. *상담학연구*, 9(3), 925-942.
- 정지선 (2008).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의 복합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지선 (2021).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주는 요인: 학교폭력 피해 유형, 부모 방임, 외로움을 중심으로. *인문사회21*, 12(1), 2645-2660.
- 조보행 (2013). 청소년자살의 위험요인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매개효과와 조절효과분석. *청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진미 (2019). 노인의 분노에 대한 목회상담학적 접근: 오정희 소설 속 노인의 '분노'를 중심으로. *서울신학대학교 상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현진 (2016). 자살예방을 위한 노인 동료 케이트키퍼 양성훈련 프로그램 효과 검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6(6), 771-795.
- 좌혜경 (2004). 한국 장애여성 담론 분석: 영화 '오아시스'에 대한 논쟁을 중심으로. *성공회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주은선, 이경은 (2018). 한국 상담심리의 발전과정과 향후과제: 역대 한국 상담심리학회장들의 포커스 그룹인터뷰를 중심으로. *교육문화연구*, 24(4), 195-218.
- 채수미 (2020). 한국 사회의 자살 실태와 자살 고위험군 발굴 전략. *보건복지포럼*, 282, 55-66.
- 천정웅 (2019). *질적연구방법 총론*. 파주: 양서원.
- 최기별 (2021). 대학생의 자기수용, 타인수용, 사회적 지지 및 대학생 따돌림 피해 경험 간의 관계. *삼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인이 (2020). 창작물 유통 플랫폼의 노동통제 방식에 관한 연구: 유료 웹툰 플랫폼의 사례를 중심으로. *산업노동연구*, 26(2), 45-76.
- 최정미, 이영호 (2017). 가정폭력에 노출된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교류분석상담연구*, 7(2), 53-81.
- 최정민, 이미형, 이은진, 박시현 (2020). 가정폭력을 겪은 알코올 중독자 배우자의 외상 후 성장. *정신간호학회지*, 29(4), 315-324.
- 최진영, 김기현 (2019).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의 중복발생이 아동의 우울궤적에 미치는 영향 연구. *사회복지연구*, 50(1), 101-133.
- 통계청 (2019). *2018년 사망원인통계*. 대전: 통계청.
- 통계청 (2021). *2020년 사망원인통계*. 대전: 통계청.
- 파데날헤나송 (2021). 한국과 미국 아동학대 담당 사회복지사의 조직사회화에 대한 사례연구: 영화 '어린 의뢰인'과 '게이브리엘의 죽음: 누구의 책임인

가?’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하근희 (2021). 애니메이션을 활용한 죽음교육의 방향 탐색: ‘코코’를 중심으로. *한국초등교육*, 32(1), 277-294.
- 하정미, 설연옥, 좌문경 (2010). ‘인식된 짐스러움’과 ‘좌절된 소속감’이 청소년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26(4), 223-246.
- 하혜주, 심은정 (2019). 아동학대 유형과 우울 증상 양상의 관계: 네트워크 분석. *한국청소년연구*, 30(1), 251-277.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18). *청소년 자살예방 교육프로그램 ‘아이러브유’*. 서울: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허5과6 (2017). *여중생A (1-5권)*. 서울: 비아북.
- 홍나미, 정영순 (2012). 자살 시도 청소년과 자살 비시도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비교분석: 짐이 되는 느낌과 좌절된 소속감의 직접효과와 매개효과. *한국아동복지학*, 40, 255-283.
- 홍태석 (2016). 기업범죄에 있어 대항적 관여자의 형사책임: 일본의 논의를 참고로. *법학연구*, 16(1), 167-190.
- 홍현미라, 권지성, 장혜경, 이민영, 우아영 (2008). *사회복지 질적 연구방법론의 실제*. 서울: 학지사.
- 화이트페이퍼 (2017. 9. 27). “당대를 드러내고 위로하는 작품”...여중생A 심사평 ‘새삼 눈길’. <https://www.whitepap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90433>에서 2022년 4월 13일 인출.
- 황규리 (2019). 조현병 관련 언론 보도 시각과 경향에 대한 내용분석: 네이버 모바일 뉴스를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옥청 (2020). *중국 청소년 자살 시도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ro, H. M., Marttunen, M. J., & Lönnqvist, J. K. (1993). Adolescent development and youth suicide.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23(4), 359-365.
- Begue, L. (2013). 도덕적 인간은 왜 나쁜 사회를 만드는가: 철학이 묻고 심리학이 답하는 인간 본성에 대한 진실 [*Psychologie du bien et du mal*]. (이세진 역). 서울: 부키. (원전은 2011년에 출간)
- Benjamin, L. T., & Simpson, J. A. (2009). The power of the situation: The

- impact of Milgram's obedience studies 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The American Psychologist*, 64(1), 12-19.
- Bloom, P. (2019). 공감의 배신: 아직도 공감이 선하다고 믿는 당신에게[*Against empathy: The case for rational compassion*]. (이은진 역). 서울: 시공사. (원전은 2016년에 출간)
- Brent, D. A. (1995). Risk factors for adolescent suicide and suicidal behavior: Mental and substance abuse disorders, family environmental factors, and life stress.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25, 52-63.
- Brent, D. A., & Perper, J. A. (1995). Research in adolescent suicide: Implications for training, service delivery, and public policy.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25(2), 222-230.
- Brent, D. A., Moritz, G., Bridge, J., Perper, J., & Canobbio, R. (1996). The impact of adolescent suicide on siblings and parents: A longitudinal follow-up.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26(3), 253-259.
- Brent, D. A., Perper, J. A., Moritz, G., Baugher, M., Roth, C., Balach, L., & Schweers, J. (1993). Stressful life events, psychopathology, and adolescent suicide: A case control study.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23(3), 179-187.
- Brinkman-Sull, D. C., Overholser, J. C., & Silverman, E. (2000). Risk of future suicide attempts in adolescent psychiatric inpatients at 18-month follow-up.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30(4), 327-340.
- Buss, D. M. (2012). 진화심리학: 마음과 행동을 탐구하는 새로운 과학 제4판 [*Evolutionary psychology: The new science of the mind*]. (이충호 역). 파주: 웅진지식하우스. (원전은 2011년에 출간)
- Cialdini, R. B., Kenrick, D., & Neuberg, S. L. (2020). 사회심리학: 마음과 행동을 결정하는 사회적 상황의 힘 제6판[*Social psychology: Goals in interaction*]. (김아영 역). 파주: 웅진지식하우스. (원전은 2014년에 출간)
- Cooper, J. C. (1971). The 'new hermeneutic' and metaphysics. *Bucknell Review*, 19(1), 125-140.
- Feleppa, R. (1981). Hermeneutic interpretation and scientific truth. *Philosophy of the Social Sciences*, 11(1), 53-64.
- Frankl, V. M. (2020). 죽음의 수용소에서[*Man's search for meaning*]. (이시형 역). 파주: 청아출판사. (원전은 1946년에 출간)

- Grzanka, P. R., & Moradi, B. (2021). The qualitative imagination in counseling psychology: Enhancing methodological rigor across method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68*(3), 247-258.
- Henry, C. S., Stephenson, A. L., Hanson, M. F., & Hargett, W. (1994). Adolescent suicide and families: An ecological approach. *Family Therapy, 21*(1), 63-80.
- Hewitt, P. L., Newton, J., Flett, G. L., & Callander, L. (1997). Perfectionism and suicide ideation in adolescent psychiatric patient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5*(2), 95-101.
- Joiner, T. (2012). 왜 사람들은 자살하는가? [*Why people die by suicide*]. (김재성 역). 서울: 황소자리. (원전은 2005년에 출간)
- Kopf, D. (1980). Hermeneutics versus history. *Journal of Asian Studies, 39*(3), 495-506.
- Lester, D., & Bean, J. (1992). Attitudes toward preventing versus assisting suicid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32*(1), 125-127.
- Maris, R. (1985). The adolescent suicide problem.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15*(2), 91-109.
- Mason, D., & Allen, B. P. (1976). The bystander effect as a function of ambiguity and emergency character.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00*(1), 145-146.
- Mazza, J. J., & Reynolds, W. M. (1998). A longitudinal investigation of depression, hopelessness, social support, and major and minor life events and their relation to suicidal ideation in adolescents.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28*(4), 358-374.
- Miller, D. N., Eckert, T. L., Dupaul, G. J., & White, G. P. (1999). Adolescent suicide prevention: Acceptability of school-based programs among secondary school principals.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29*(1), 72-85.
- Osman, A., Gilpin, A. R., Panak, W. F., Kopper, B. A., Barrios, F. X., Gutierrez, P. M., & Chiro, C. E. (2000). The multi-attitude suicide tendency scale: Further validation with adolescent psychiatric inpatients.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30*(4), 377-385.
- Patterson, M. E., Watson, A. E., Williams, D. R., & Roggenbuck, J. R. (1998). An hermeneutic approach to studying the nature of wilderness experience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30(4), 423-452.

- Paul, L. A. (2021). The paradox of empathy. *Episteme*, 18(3), 347-366.
- Ponterotto, J. G. (2005). Qualitative research in counseling psychology: A primer on research paradigms and philosophy of scienc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2(2), 126-136.
- Prasad, P. (2019). 질적 연구의 이해: 포스트실증주의 전통의 관점에서[*Crafting qualitative research: Working in the postpositivist traditions.*]. (다문화교육이론연구회 역). 서울: 한국문화사. (원전은 2005년에 출간)
- Rigby, K., & Slee, P. (1999). Suicidal ideation among adolescent school children, involvement in bully-victim problems,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29(2), 119-130.
- Ritchie, J., Lewis, J., Nicholls, C. M., & Ormston, R. (2017). 질적연구의 이론과 실제 제2판[*Qualitative research practice: A guide for social science students & researchers.*]. (이병숙, 강성례, 박영례, 박은영, 손행미, 이용숙 역). 서울: 정담미디어. (원전은 2013년에 출간)
- Sanderson, C. A. (2021). 방관자 효과: 당신이 침묵의 방관자가 되었을 때 일어나는 나비 효과[*The bystander effect: The psychology of courage and inaction.*]. (박준형 역). 서울: 쌤앤파커스. (원전은 2020년에 출간)
- Solomon, L. Z., Solomon, H., & Maiorca, J. (1982). The effects of bystander's anonymity, situational ambiguity, and victim's status on helping.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17(2), 285-294.
- Solomon, S., Greenberg, J., & Pyszczynski, T. (2016). 슬픈 불멸주의자: 인류 문명을 움직여온 죽음의 사회심리학[*The worm at the core: On the role of death in life.*]. (이은경 역). 서울: 흐름출판. (원전은 2015년에 출간)
- Topol, P., & Reznikoff, M. (1982). Perceived peer and family relationships, hopelessness and locus of control as factors in adolescent suicide attempts.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12(3), 141-150.

ABSTRACT

A Counseling Study of Adolescent Suicide and Non-Involver from the Webtoon 'Student A'

Song, Hannah

Department of Counseling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Sahmyook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non-involvement in suicide from the adolescent who has a suicide ideation and non-involver. Violent situations in the house or the school, which lead to adolescent suicide, are reinforced under direct or indirect connivance of non-involver. In a sense, the adolescent decided to suicide is also the 'non-involver himself' to be free from the suffering. It is difficult to solve this problem with only personal effort due to the phenomenon of non-involver almost not changed. Therefore, characteristics of adolescent suicide and non-involver are analyzed to provide the basis of external interventions of counselors, and to construct the primary data for gatekeeper programs. For these reasons, webtoon 'Student A' is selected by purposive sampling among webtoons published during 10 years from 2012 to 2022 since the description of related factors

in adolescent suicide is more realistic.

The research method for this study is the hermeneutic circle. It explain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whole' and 'the parts' when to understand the one completely. To secure evidence of the study, various materials related to research objective are also presented together with study results. Consequently, all the non-involved in the house or the school, include the adolescent who has a suicide ideation, undergo a process of 'Violent Situation', 'Upsurge of Empathy', 'Immersion of the Emotion', 'Suffering', 'Avoidance'. It is proceeded by human need to escape the repetition of interpersonal distress. This perspective helps to stop stigmatizing the adolescent who has a suicide ideation and non-involved. Instead, it makes to understand the phenomenon through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whole context and partial situations before examining their minds and behaviors.

Therefore, highly trained counselors in suicide are significantly required to pre-empt the distress of adolescent and the vicious circle of non-involvement, and to make non-involved act for suicide prevention. In the intervention, counselors should look at non-involved, include the adolescent decided to suicide, just as they are. Also, counselors are necessary to improve the adolescent and non-involved' misconceptions in suicide, and to motivate non-involved to act appropriately.

Keyword : Adolescent Suicide, Hermeneutic Study, Webtoon 'Student A', Suicide Prevention, Non-Involver